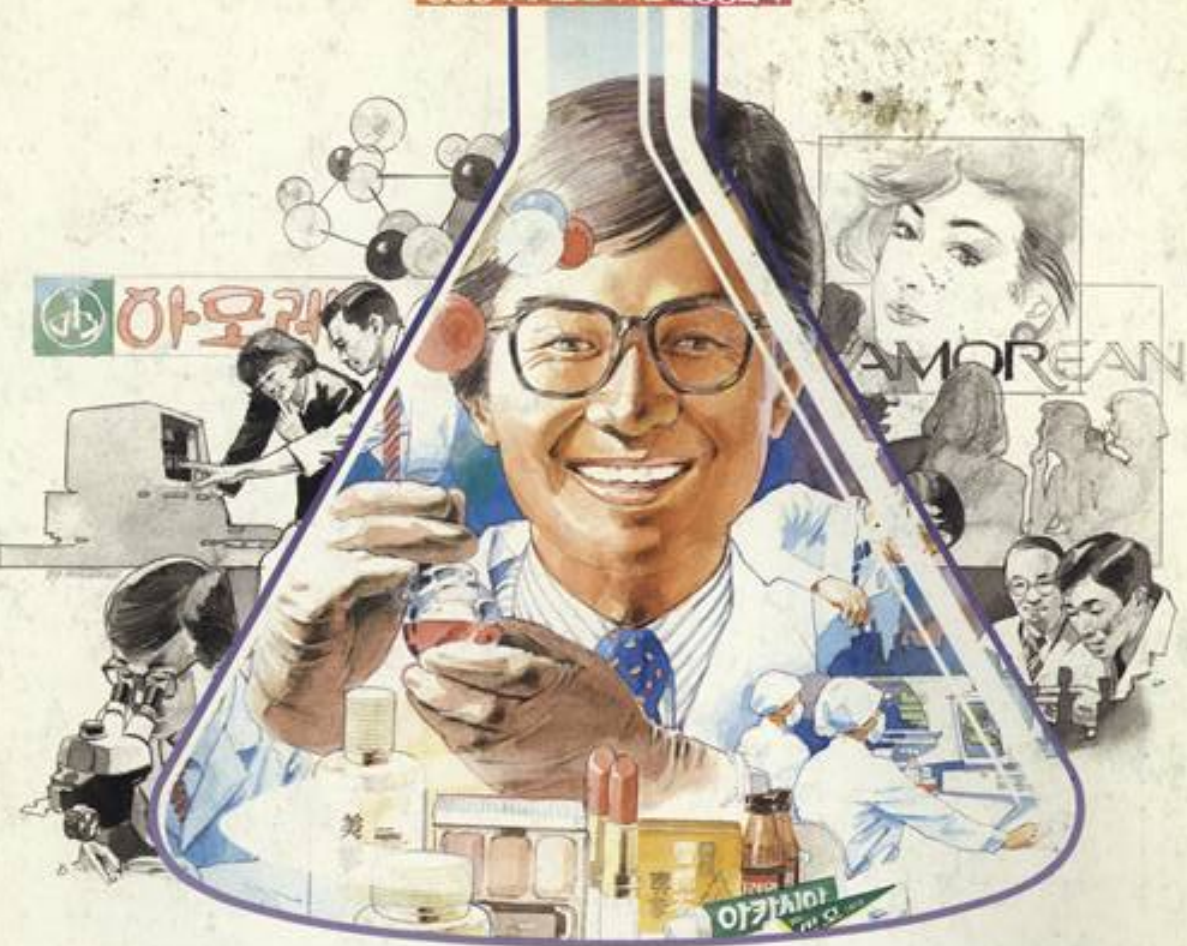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철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심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않는 저자극성 화장품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냈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축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여상

월간여성 7월호(통권 276호) / 1990년 7월 10일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사)라-7
우편번호 140-013 사단법인 한국어성당채널협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 인가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환경보전 생활실태 조사





• 드본 카이저 스킨 컨디셔너 150ml 7,800원
• 드본 카이저 에프터 셰이브 폼 150ml 7,800원
• 드본 카이저 스프레이 150ml 7,800원

생활의 분위기가 그남자를 말해준다-카이저

남자의 카이저 시리즈



• 드본 카이저 에프터 셰이브 폼 후레이 150ml 7,800원 • 드본 카이저 스킨 컨디셔너 후레이 150ml 7,800원
• 드본 카이저 스프레이 스킨로션 150g 7,800원 • 드본 카이저 헤어크림 150ml 7,800원
• 드본 카이저 헤어토닉 150ml 7,800원

자신도 모르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생활의 분위기.
그것이 한 사람의 남자를 완성시켜 간다.
은은한 향취로 느끼는 완숙의 남성미—
남성화장품 드본 카이저

DEBON
KAISER

월간 여성

1990년 7월호
통권276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여성/조정순
현대 여성과 전통 식생활

특집/환경보전 생활실태 조사

6 특집/소비자보호연구부
서울시 주부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16 과소비추방캠페인/조순
과소비의 의미와 여성의 역할

20 여성계 원로 초대석 ⑥
김정옥 선생님

23 아들의 여성계 동행/홍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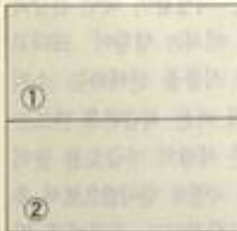
32 여성노동 / 한정자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37 노동상담 실무자교육 토론내용

41 매스킹에 비친 여성 / 오혜란
현행 월간 여성지의 문제점 분석

46 협의회 소식

48 우리들의 공장



표지사진설명
과소비추방법여성실천결의대회
① 대회를 하는 본회 김경오
회장
② 가두캠페인에 나선 대회
참가자들



26 여성전문직 ⑨ / 이장근
스크립터

28 근로여성고발장구 / 근로여성상담부
근로여성고발장구 운영보고서
(1990. 4. 1~6. 30)



54 지방여성단체소식
충청남도지역

57 주소록

현대 여성과 전통 식생활

조정순 (대한영양사회 회장)



한 나라의 전통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조건 뿐만 아니라 문화·정치·경제·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고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우리 전통음식을 살펴보면 첫째, 곡류음식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쌀을 비롯한 곡류를 이용하여 밥·떡·죽·과자류·주류·양념류 등의 제조방법이 발달하였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채소류를 이용한 음식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 밭에서 재배한 채소의에도 들과 산에서 나는 여러가지 나물들을 이용하여 섬세한 손동작으로 무쳐 숙제와 생채의 재맛을 낼 줄 알았다. 그중에서도 김치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육류는 사냥한 짐승, 집에서 사육한 소·돼지·닭 등을 작게 자르거나 칼집을 많이 넣어 양념이 고루 배게 하여 굽거나 볶거나 찌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였다. 해산물의 이용은 세계에서 단연 두드러지는데, 조리방법이 다양하여 생선류와 조개류를 지지고, 찌기, 굽기, 튀기기 등의 방법으로 조리했을 뿐만 아니라 식혜, 젓갈 등의 발효음식으로 만들 줄 알았다. 또한 미역, 김, 파래 등의 해조류를 이용하는 음식도 풍부했다.

이렇듯이 우리 조상들은 식품재료와 조리방법을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줄 알았고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 하여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식

생활에 대한 소박하고도 경건한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의 문물이 밀려 들어옴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인 식문화가 점차 파괴되어가고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면서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 푸드 등이 범람하고 잦은 결식과 외식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서구문명과 함께 유입된 서구의 식문화는 우리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취향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세대차이'가 입맛에서도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다. 김치나 된장찌개, 고추장 등에 손을 대지 않는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식량의 외국의존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식량의 국내 자급도는 일차적으로 사회·정치·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식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도 기준으로 주곡인 쌀의 자급률이 97.9%인데 반해 밀과 옥수수는 각각 0.1%, 2.5%에 그쳐 전체적인 곡류의 자급률은 40.1%였다. 또한 콩도 자급률이 낮은 식품으로서 9.2%에 그치고 있어 식용유의 낮은 자급도의 한 원인이 된다. 한편, 10년 전인 1978년도의 자급률은 곡류는 71.6%였고, 쌀의 경우 103.9%, 밀이 2.1%, 옥수수가 6.0%, 콩은 59.3%

였음과 비교해 볼 때 쌀은 자급을 이룰 수 있었으나 콩을 비롯한 밀, 옥수수의 경우 국내 생산이 늘어나는 소비에 크게 못미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곡물자급도는 빠른 추세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각국의 식량정책을 보면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점과 식량의 생산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때문에 식량의 안전공급이 국가안보적 차원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자의 농정추진과 함께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의 식품을 이용하는 것, 즉 전통음식의 계승과 발전이 중요하다 하겠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대되면서 식생활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식생활의 큰 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식생활이 국민 건강과 나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 건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로서, 가족의 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주부로서, 또한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여성들은 과학적이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 전통음식을 계승시키고 현대 생활에 맞게 창조·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

특집

환경보전 생활실태 조사



서울시 주부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주부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바를 조사하여 날로 악화되어 가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연구부

I. 조사의 목적과 방법

1. 조사의 목적

지금 우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단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과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선 전 국민이 새로운 생활자세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회에서는 주부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바를 조사하여 날로 악화되어 가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선정: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의도적인 추출방법에 의해 787명을 선정하였다.

2) 조사기간: 1990년 5월 23일~5월 30일까지 8일간

3) 자료수집: 본회 모니터 22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토대로 단순집계하였고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병행하였다.

5) 조사한계: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서 조사의 편의상의 도적인 추출방법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서울시 주부 전체

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조사의 결과가 어느 정도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I. 자료의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세~39세까지의 연령계층이 314명으로 전체응답자 787명 가운데 39.9%라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 순으로 40~49세 27.4%, 20~29세 18.4%, 50~59세 12.3%,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1.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가 전체의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대학졸업으로 40.3%, 석사이상이 3.3%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수입을 보면 80~100만원이 가장 많은 28.6%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100~200만원의 소득층이 이와 비슷한 23.6%를 차지하였다. 한편, 4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6.2%로 매우 적게 표집되었다.

표집된 787명의 거주형태의 분포를 보면, 단독주택이 65.9%로 단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파트지역은 20.1%로 그 다음 순이었다.

2. 세탁, 세발시의 비누 사용 여부

대부분 주부들이 빨래를 할 때, 빨래비누와 합성세제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탁비누 사용보다는 합성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높았다. <표1>을 보면 세탁비누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7.6%에 불과한데 비해 합성세제만의 이용률은 17.9%였다.

<표1> 세탁, 세발시의 비누 사용 여부

구 분	백분율(빈도)
빨래비누로만	7.6(60)
빨래비누와 합성세제 혼용	73.7(580)
합성세제만	17.9(141)
기 타	0.8(6)
계	100.0%(787명)
삼푸로만	75.3(593)
비누와 삼푸로	19.9(157)
비누로만	4.2(33)
기 타	0.5(4)
계	100.0%(787명)

즉 합성세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91.6%라는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 75.3%가 삼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누만 사용한다는 4.2%와 비교해 볼 때, 세탁시·세발시 합성세제나 삼푸의 이용률이 단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수도물 절약방법

1) 세안시 수도물 사용 방법

세수를 할 때 수도물 사용방법을 보면 73.4%가 물을 낭비하지 않고 그곳에 담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물을 틀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는 26%로 나타났다(<표2>). 이러한 수도물 낭비와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고학력일수록 물을 틀어 놓고 세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저학력일수록 물을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2> 세안시 수도물 사용 방법

구 분	백분율(빈도)
세면대나 세수대기에 담아서	73.4(578)
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25.9(204)
기 타	0.6(5)
계	100.0%(787명)

2) 목욕시 수도물 사용 방법

목욕을 할 때의 물 사용을 보면 혼자서 목욕하는 경우가 73%이상을 차지하였고, 엄마와 애들이 같이하는 경우는 19.8%, 전가족이 함께하는 경우는 겨우 1.5%에 불과했다(<표3>). 전가족이 함께 목욕하는 경우,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절수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절수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3> 목욕시 수도물 사용방법

구 분	백분율(빈도)
혼자서 목욕	73.3(577)
엄마와 애들이 함께	19.8(156)
전가족이 함께	1.5(12)
애들끼리	3.4(27)
부부가 같이	1.9(15)
계	100.0%(787명)

3) 목욕후의 수도물 처리방법

목욕후의 물 처리방법으로는 61.7%가 욕실청소, 걸레 또는 빨래 등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그냥 다 버린다고 한 경우는 37.7%로 나타났다(<표4>).

<표4> 목욕후의 수도물 처리방법

구 분	백분율(빈도)
빨래를 한다	10.2(80)
걸레를 뺐다	14.2(112)
욕실청소를 한다	36.5(287)
그냥 다 버린다	37.7(297)
기 타	1.4(11)
계	100.0%(787명)

4) 화장실 번기의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화장실 번기의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번기탱크에 돌이나 물을 채운 병 등을 넣어 두고 있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선 13.5%만이 현재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표5>). 이를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번기의 물을 절약하기 위해 거의

●특집●

환경보전 생활실태 조사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화장실 번기의 물을 절약하는 방법 사용여부

구 분	백분율(빈도)
절약하고 있다	13.5(106)
절약하고 있지 않다	85.3(671)
기 타	1.3(10)
계	100.0% (787명)

4. 쿨링호일·랩·종이타월 사용여부

음식을 보관·저장할 때 쿨링호일이나 랩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10.9%로 나타났는데, 이는 플라스틱용기만을 이용하는 13.3%보다 조금 낮은 비율이지만 다른 그릇(유리병, 스텐레스) 이용의 경우 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이었다(표 6). 이와 함께 부엌에서 종이타월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전체의 1.9%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부들이 행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주사용률을 보면 4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7).

〈표 6〉 쿨링호일·랩 사용여부

구 분	백분율(빈도)
쿨링호일·랩	10.9(86)
유리병	7.4(58)
플라스틱 용기	13.3(105)
스텐레스 그릇	3.7(29)
위 모든 것 다	63.0(496)
기 타	1.7(13)
계	100.0% (787명)

〈표 7〉 종이타월 사용여부

구 분	백분율(빈도)
행주로만	46.4(365)
행주와 종이타월을 같이	49.2(387)
종이타월만	1.9(15)
기 타	2.5(20)
계	100.0% (787명)

5. 자동차와 대기오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도

1) 자동차 이용과 대기오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도
자동차의 사용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선 84%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겨우 0.4%에 불과했다(표 8). 이를 보면 97% 이상이 자동차사용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도는 자동차의 휘발유 이용도를 보면 더욱 잘 나타나는데 34% 이상의 주부들이 무연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유연휘발유는 전체의 11.4%에 불과했다(표 9). 또한 자동차 연료의 이용과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매우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학력일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저학력일수록 대기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인 매연을 발생시키는 유연휘발유 사용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8〉 자동차와 대기오염과의 상관인식도

구 분	백분율(빈도)
매우 심각한 영향	84.0(661)
조금 영향	13.6(107)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0.4(3)
잘 모르겠다	2.0(16)
계	100.0% (787명)

〈표 9〉 자동차의 휘발유 사용도

구 분	백분율(빈도)
무연휘발유 사용	72.7(269)
유연휘발유 사용	24.3(90)
기 타	3.0(11)
계	100.0% (370명)

6. 자가용 구입과 경제력의 상관도

경제력과 자가용구입에 대해선 54.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24.8%는 돈이 있어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표 10). 이와 함께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고학력일수록 자가용구입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저학력일수록 자가용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경제력이 있을 때 자가용 구입여부

구 분	백분율(빈도)
구입하겠다	28.9(166)
구입하지 않겠다	71.1(426)
계	100.0% (592)

7. 자가용을 구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

경제력이 있어도 자가용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주부는 전체 787명중 195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24.8%에 해당하는데, 그중 자가용 구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주된 원인을 교통난 가장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교통난 가중에는 가장 많은 45.6%가 응답했고, 아직 자가용 구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용 구입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인식한 경우는 단지 8%에 불과한 아주 적은 비율이었다. 그런데, 자가용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주부들은 84%에 해당하는데, 자가용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자가용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8%에 불과했다(표 11).

〈표 11〉 자가용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백분율(빈도)
교통난 가중때문	45.6(98)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40.5(79)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서	8.2(16)
잘 모르겠다	0.5(1)
기 타	5.1(10)
계	100.0% (195명)

8. 자가용 합승제 이용도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자가용을 같이 타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선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9.1%로 나타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가장 많은 65.1%로 나타났다(표 12). 이를 보면, 아직까지도 자가용합승제에 대한 홍보 및 계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 의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자가용합승제 이용도

구 분	백분율(빈도)
이용해 보았다	29.1(229)
이용한 적이 없다	65.1(512)
무응답	5.8(46)
계	100.0% (787)

9. 오존층파괴 원인에 대한 인식

오존층 파괴를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자동차매연을 드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할론가스, 에어컨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의 비율을 보면 29.7%만이 오존층파괴의 실재원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지 70% 이상이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3). 그러므로 앞으로는 전지구적 보호 차원에서 새롭고 올바른 홍보와 계몽이 있어야겠다.

〈표 13〉 오존층파괴 원인에 관한 인식

구 분	백분율(빈도)
지구의 온도변화	13.5(106)
합성세제	12.6(99)
자동차매연	32.7(257)
할론가스, 에어컨, 차량에어컨	29.7(234)
모르겠다	11.6(91)
계	100.0% (787명)

10. 건전지 구입과 처리방법

1) 건전지 구입방법

건전지 구입에 관한 질문에선 주부들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34.1%로 가장 많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건전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표 14).

이러한 건전지 구입과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일회용 건전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고학력일수록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재충전할 수 있는 것만 구입하는 경우는 중졸이하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특집●

환경보전 생활실태 조사

2) 건전지의 처리방법

건전지를 사용한 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

〈표14〉 건전지 구입방법

구 분	백분율(빈도)
일회용 건전지만	34.1 (268)
재충전용 건전지만	10.2 (80)
아무거나 되는대로	15.2 (120)
일회용을 구입할 때도, 재충전용을 구입할 때도 있다	40.5 (319)
계	100.0% (787명)

문에선,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70% 이상이나 되었다. 수은 건전지 등은 그냥 버릴 경우 토양이나 물에 흘러들어가 인체에 매우 유독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방지로 비닐에 싸서 버리는 경우는 25%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표15). 이를 볼때, 아직까지 건전지를 사용한 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전지 수거에 대해서는 우선 당국의 적절한 수거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표15〉 건전지 처리방법

구 분	백분율(빈도)
쓰레기통에 버린다	70.6 (556)
비닐봉지에 싸서 버린다	24.9 (196)
건전지 수거단체에 보낸다	0.5 (4)
모아 놓는다	1.9 (15)
상점에 가서 교환한다	1.0 (8)
기 타	1.0 (8)
계	100.0% (787명)

11.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1)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현재 서울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86.4%의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16).

2)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실태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60%가 현재 실행하고 있

〈표16〉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구 분	백분율(빈도)
매우 심각	86.4 (680)
조금 심각	11.1 (87)
전혀 심각하지 않는다	1.3 (10)
모르겠다	1.3 (10)
계	100.0% (787명)

지 않았으며, 그냥 쓰레기를 모두 다 함께 버리고 있었다(표17).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도 청소부가 다 같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전체 주민의 58.4%가 응답했다(표18). 이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쓰레기 분리에 대한 거주형태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일수록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7〉 쓰레기 분리에 대한 실태

구 분	백분율(빈도)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린다	38.4 (302)
분리하지 않고 버린다	60.1 (473)
무응답	1.5 (12)
계	100.0% (787명)

〈표18〉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는 이유

구 분	백분율(빈도)
분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26.2 (124)
쓰레기를 분리해도 청소부가 다같이 수거하기 때문	58.4 (276)
분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12.1 (57)
기 타	3.4 (16)
계	100.0% (473명)

이와 함께 다 쓴 신문지와 유리병의 재활용, 재이용도를 보면, 신문에 대한 재활용·이용도는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리병의 재활용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50%정도로 나타났는데(표19), 이를 보면 유리병에 대한 재활용이 아직까진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9〉 신문지·유리병 처리방법(중복응답)

구 분	백분율(빈도)
신문지를 모아서 판다	15.6 (245)
학교에서 수집할 때 갖다준다	21.4 (337)
부녀회에서 모집시 보낸다	2.3 (36)
쓰레기통에 버린다	5.5 (86)
집에서 활용한다	7.1 (112)
기 타	48.2 (758)
계	100.0% (1574)
유리병을 음식자장 등에 사용	33.4 (183)
유리병을 모아서 판다	38.9 (210)
쓰레기통에 버린다	24.5 (134)
기 타	3.8 (21)
계	100.0% (548명)

12. 무명기저귀 사용도

아기 기저귀 사용을 보면, 무명기저귀만 사용하는 경우가 종이 기저귀만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표20).

그러나 종이기저귀와 무명기저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20.7%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종이기저귀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저귀 사용과 학력과의 관계를 보면, 석사 이상의 학력자일수록 종이기저귀 사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무명기저귀 사용은 중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종이기저귀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무명기저귀 사용도

구 분	백분율(빈도)
무명기저귀만	9.0 (71)
종이기저귀만	5.3 (42)
무명·종이기저귀 다같이	20.7 (163)
해당 사항 없음	64.9 (511)
계	100.0% (787명)

13.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가정내의 가전제품 관리에 관한 물음에서는, 가전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6%에 불과하



●특집●

환경보전 생활실태 조사

였고, 74%가 고장날 때만 점검받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 난방시스템의 점검 실태를 보면 2~3년에 한번씩 보일러 점검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1년에 한번이었다. 점검하지 않고 노후되면 그냥 버리는 경우도 전체의 16%나 차지하였다(표21).

(표21) 가전제품 및 난방시스템 점검도

구 분	백분율(빈도)
가전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	6.4(50)
고장날 때만 점검	74.0(582)
정기적 점검에 신경쓰지 않음	13.5(106)
고장날 때까지 사용하고 버림	6.2(49)
계	100.0%(787명)
난방시스템을 수시로 점검	22.9(144)
1년에 한번씩 점검	43.4(273)
2~3년에 한번씩 점검	11.8(74)
점검하지 않고 노후되면 버림	16.5(104)
기 타	5.4(34)
계	100.0%(787명)

가정의 전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가전제품의 정기적인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재 주부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의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만 불을 켜는 것이라고 응답한 주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TV를 보지 않을 땐 끈다, 다림질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 놓는다는 순으로 응답했다(표22). 이 표를 보면 가정에서의 전력절약정신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가족원의 식목실태

한해 동안 각 가족원들의 식목에 대한 실태를 보면, 33% 정도가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응답했으며, 3~6그루는 9.5%로 매우 낮았고, 전혀 심지 않고 있다는 주부가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23).

(표22)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중복응답)

구 분	백분율(빈도)
사용하는 장소에만 불을 켜다	23.9(651)
TV를 보지 않을 땐 꺼버린다	20.6(561)
다림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15.5(422)
가전제품을 쓰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아놓는다	12.9(351)
형광등만 사용한다	10.9(296)
냉장고에 물건을 적당히 넣는다	7.7(210)
전기밥솥을 사용하지 않는다	8.4(229)
계	100.0%(2720)

(표23) 식목실태

구 분	백분율(빈도)
1~2그루	33.7(265)
3~6그루	9.5(75)
전혀 심지 않는다	56.8(447)
계	100.0%(787명)

이를 보면, 가족원들의 식목실태는 매우 낮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위해 1인 1나무심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월평균소득과 식목실태와의 관계를 보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가정내 독성물질 소유여부

각 가정 집안에 감추어져 있는 유독한 독성물질의 실태를 살펴보면, 종약이 가장 많은 3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헤어스프레이(22.7%), 무스(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24).

또한 헤어스프레이와 무스의 사용은 43.4%에 달하는데 이는 오존층의 파괴를 가져오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인체의 피해를 오히려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24) 가정내 독성물질보유 실태(중복응답)

구 분	백분율(빈도)
종 약	31.0(618)
집대의 리넨천	6.2(124)
오븐 플러너	5.1(101)
공기 청정제	8.8(175)
영구적으로 줄을 세운 옷	5.5(109)
헤어 스프레이	22.7(451)
무스	20.7(413)
계	100.0%(1991)

16. 파란잔디·야생동물 제품 소유 여부

수질오염방지 및 자연보호(야생·해양동물)차원에서 잔디나 산호초, 모피, 상아제품 등의 이용을 가능한한 하지 말아야 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소유실태를 살펴보면, 모피제품이 가장 많은 31.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잔디(25.7%), 산호초(12.5%), 상아제품(14.7%) 순으로 나타났다(표25).

(표25) 잔디재배 및 야생동물 소유실태(중복응답)

구 분	백분율(빈도)
박제동물	9.8(67)
산 호 초	12.5(86)
각종 모피제품	31.6(217)
상아제품	14.7(101)
기타 야생동물로 만든 제품	5.7(39)
파란잔디	25.7(176)
계	100.0%(686명)

모피제품을 구입·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면, 40~49세의 연령이 이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50대 이상은 그 다음 순이었다. 또한, 모피제품은 고학력일수록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잔디는 25.7%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잔디재배를 위해서는 많은 농약과 비료 등이 사용되어 인체에 해를 끼치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17.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식

1)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식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을 주부들 스스로라고 인식한 사람은 전체의 2.7%에 불과한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느끼는 경우는 17.9%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고 동시에 느낀 사람이 가장 많은 68.5%로 나타났다(표26). 이러한 책임의식과 학력간의 관계를 보면, 석사 이상의 학력자가 가해자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중졸이하 일수록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감은 저학력일수록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26)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인식

구 분	백분율(빈도)
피 해 자	17.9(141)
가 해 자	2.7(21)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68.5(539)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다	5.2(41)
모르겠다	5.7(45)
계	100.0%(787명)

18. 인류생존 위협 요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에 관해서 주부들의 34%가 환경오염이 그 주된 원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인구문제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표27).

그러나 44%라는 많은 주부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볼 때 아직까지 주부들이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기타 인류생존에 위기를 줄 수 있는 제반여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19.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도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이나 운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주부는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을 알게 된다면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알려 함께 실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90% 이상이었다.

또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특집●

환경보전 생활실태 조사

〈표27〉 인류생존 위협 요인 (중복응답)

구 분	백분율(빈도)
인구문제	12.8(201)
환경오염	33.9(534)
자원고갈	3.6(57)
전 정	1.4(22)
핵 폭 발	4.2(66)
모르겠다	44.1(694)
계	100.0%(1574)

44%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원부터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환경보전법을 제정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34.2%가 응답했으며, 13%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표28〉 환경보호활동 참여여부

구 분	백분율(빈도)
참여해 보았다	32.0(252)
참여해 보지 않았다	68.0(535)
계	100.0%(787명)

〈표29〉 환경보전을 위한 실행여부

구 분	백분율(빈도)
혼자서 실천	5.7(45)
이웃·친구들과 함께 실천	46.3(364)
가능한 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겠다	45.5(358)
실천할 생각 없다	2.5(20)
계	100.0%(787명)

〈표30〉 환경오염문제 해결 방안

구 분	백분율(빈도)
환경보전법 제정하여 규제	34.2(269)
환경보호단체가 앞장서 해결	7.4(58)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야 한다	13.1(103)
각 가정에서의 오염원부터 줄여야 한다	44.2(348)
해결책이 없다	1.1(9)
계	100.0%(787명)

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 각 가정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 알아보고, 현재 이에 대한 인식과 실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주부 787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 나타난 바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질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샴푸의 사용률이 90%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앞으로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벌이고 있는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과 합성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함께 목욕할 때와 화장실 변기에 대한 절수운동 실천도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엔 절수운동 차원에서 목욕시 전가족이 함께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화장실 변기탱크에 돌이나 물이 든 병을 넣어 절수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사용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선 9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자동차 매연과 에어컨 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용 합승제의 이용도는 겨우 29%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실천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은 오존층의 파괴인데, 이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오존층이 파괴되는 근본원인을 올바르게 인식한 주부는 29%에 불과했고, 70% 이상이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전 지구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홍보와 계몽이 요구된다.

건전지 처리방법에서는 주부들의 70% 이상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응답했는데, 수은건전지를 그냥 버릴 경우 물이나 토양에 침투하여서 인체에 매우 유독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수은 건전지에 대해서는 당국의 적절한 수거체제 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선 86%의 주부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쓰레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청소부가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해 가기 때문이라고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보다도 우선 분리한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체제가 선행적으로 확립되어야 쓰레기 분리운동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원들의 식목실태를 보면 51%가 1년에 1그루의 나무도 심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앞으로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가정내의 독성물질 중에는 염색이 가장 많았고, 헤어스프레이, 무스 등의 순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유독한 화학물질로서 인체에 해독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직 주부들이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잔디보존을 위해선 과다한 농약이 사용되고, 모피제품이나 상아제품 등의 이용이 야생동물의 멸종을 초래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 이에 대한 소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자연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소유를 되도록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는 주부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고 느낀 사람이 가장 많은 68.5%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도는 32%로 나타났고 앞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려는 주부들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대부분 주부들이 환경문제에 매우 관심이 높으므로 민간단체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이들 주부들에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교육·계몽·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행정당국에 대해서

(1) 정부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CFC(염화불화탄소)의 생산을 중지시키고, 무연휘발유 만을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를 하도록 기업체에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

(2) 수은건전지를 수거하거나 재교환할 수 있는 적절한 수

거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3) 서울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가정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 운반하도록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쓰레기처리장 시설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기 바란다.

(4)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계몽해 주기 바란다.

(5) 자가용 합승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의 적절한 체제수립과 홍보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

(6) 주부들에게 절전·절수·자연보호·쓰레기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강령 등을 반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란다.

2) 일반 민간단체 -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1) 가정주부들이 가정내에서 쓰는 물질들이 환경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

(2) 절수, 절전, 자연보호운동, 쓰레기 분리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강령을 주부들에게 널리 홍보·계몽해 주기 바란다.

(3)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

3) 주부들에 대해서

(1) 수질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샴푸 등의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하며, 절수운동 차원에서 전가족이 함께 목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실 변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자.

(2)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들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자.

(3) 1인 1그루 나무 심기를 실천하자.

(4) 각 가정에서 잔디를 가릴 때 많은 농약이 사용되므로 이로 인한 수질·토양 오염이 가중된다. 그러므로 잔디보전에 농약사용을 되도록 억제해야 하며, 이와함께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모피제품 등의 구입을 되도록 줄여나가자.

(5) 쓰레기 양산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종이타월, 종이접시,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자.

(6)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

과소비의 의미와 여성의 역할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과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알뜰하게 쓰라는 것, 검소하게 생활하라는 말이지, 무조건 저급품만 쓰라는 말은 아니다. 고급품도 잘 선택하고, 그 질을 엄격히 감별해서 알뜰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1. 서론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 국제수지 적자 및 투자부진(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을 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향상의 부진 및 경제생활에 대한 국민자세의 해이 등을 들 수 있다.

항간에는 최근 들어, 「과소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오늘의 이모임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본인의 강연에 있어서는 「과소비」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2. 「과소비」의 의미

「과소비」란 글자 그대로 국민의 소비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다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지나치느냐의 문제가 나온다. 즉 국민의 소비수준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나의 문제가 있다. 그 기준은 바로 국민총소득(GNP)에 대한 소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몇가지 징과(徵左)가 있다. 우선 소득의 증가율보다 소비의 증가율이 앞서가고 있다.

금년 1/4분기의 GNP 성장율은 10.3%였는데 비해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11.9%였다. 이것을 가지고 당장에 과소비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투자와 수출에 비해 소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소비의 또 하나의 징후는 수입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의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소

비를 많이 하니 소비재가 잘 팔리고, 따라서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제수지가 나빠지는 것이다. 금년들어 수출의 증가는 비교적 부진한데다가 수입의 증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어, 이것이 지속된다면 금년의 경상수지에는 상당한 적자를 나타낼 것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다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중에 돈 있는 계층, 특히 불로소득이 많은 일부 사람들이 소비지출을 늘린 것이 과소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전체의 소비성향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으며, 의식주에 관련된 지출을 포함하여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비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장에



는 경기를 지탱하는 면도 있으나, 소비성향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 경제의 현황에 비추어 과소비의 가장 나쁜 영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되겠지만, 그밖에도 소비성향의 과도한 증가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축과 자본형성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또 일부계층이 고급소비재를 중심으로 과소비를 하면 그것이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3. 과소비에 대한 대책

과소비란, 일부 국민들이 부동산가격의 상승, 재테크 등으로부터의 불로소득의 결과로, 사치성 소비재를 사들임으로써 일어난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일부 수

입업자들이 사치재를 수입하여,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여 일부 수입전시장의 전시물이 줄어드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서, 그것이 국내외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사실은 소비성향이 지금 전반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불로소득층이나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소비생활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다 과소비를 삼가야 하는 것이다.

과소비를 삼간다는 것은 무조건 고급품을 쓰지말라는 말은 아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기호가 고급화, 다양화하여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국민은 그들의 자력의 범위내에

서라면 고급품을 잘 선택해서 쓸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업이 질이 좋은 생산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언제까지나 저급품에만 만족하는 경제에는 고급품이 생산될 수 없고, 고급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과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알뜰하게 쓰라는 것, 검소하게 생활하라는 말이지, 무조건 저급품만 쓰라는 말은 아니다. 고급품도 잘 선택하고, 그 질을 엄격히 감별해서 알뜰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백화점에는 지금 저급품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저급품은 값이 싸도 사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사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잘 골라서 고급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기업은 전력을 기울여 고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수입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아무리 정부에서 수입품을 사라고 권장해도 일본국민은 국산품을 애용한다. 그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일본상품이 수입품보다 질이 좋고 고급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민은 어떤 다른 나라 국민에 못지 않게 매우 「애국적」이다. 금년 2월,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질이나 가격이 비슷한 경우 국민은 수입상품보다 국산품을 사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81.9%에 달했다. 국민이 수입상품을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국산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다.

이에 관련해서 한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다. 만일 국민이 수입소비재의 수입을 크게 줄이고, 그 대신 그만큼 국산소비재의 소비를 늘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국제수지를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그것은 국제수지에 대해,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산품이라고 해도 그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산품의 소비를 늘리면 총수입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입을 줄이고,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 그것은 원가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셋째, 국산품의 질의 향상을 저해할 것이다.

넷째, 수입반대의 운동이 지나치면, 그것은 외국의 대한국 불신감을 심화시키고, 외국인의 대한(對韓) 감정을 악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소비에 대한 대책의 기본은 무조건 고급품을 추방하든가, 품질이 나쁘고 값이 비싸더라도 무조건 국산품을 사도록해야 한다는가, 오직 일부 계층의 사치성 소비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국민이 소비재출의 크기를 줄이고, 저급품이나 고급품을 막론하고 불필요한 것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소비지출이 줄면 수입(輸入)은 자연히 준다. 수입(輸入)을 줄여야 소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여야

수입(輸入)이 주는 것이다.

4. 여성의 역할

산업화가 될수록 여성의 책임이 중요하게 된다. 여성은 가정의 기둥이고, 한국에 있어서 어린이의 교육은 여성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간다는 여성의 덕성은 남성의 그것보다도 더 높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나라의 긴 장래라는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의 책임은 남성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소비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을 들면,

첫째, 모든 가정에서 소비지출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소비재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하여 인식(眼識)을 높여서 품질이 나쁜 것을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냉정히 생각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이라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소비의 책임은 일부계층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물론 일부계층의 전 시적 사치성지출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국민의 각자가 조금씩 총지출을 줄이는데 있다.

의·식·주에 관련된 일상지출에는 아직도 합리화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둘째,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자연의 추세이고, 따라서 여성들은 이들 제품의 가격이나 질에 대해 인식(眼識)을 갖추어야 한다. 고급품을 무조건 경원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질과 성능을 잘 알도록 노력하고, 스스



과소비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을 들면,

첫째, 모든 가정에서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소비재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하여 인식(眼識)을 높여서 품질이 나쁜 것을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셋째,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냉정히 생각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이라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로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단체에서는 외제품의 불매운동에 힘쓰기보다는 수입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산품과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수입품의 유통과정에서 불완전경쟁에 따른 과도한 유통마진이 수입품의 고가화를 초래하여 국산품가격까지 상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교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교육에는 전체적으로 부모의 규범이 확실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풍조가 약화되어 있다. 물건을 잃어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가, 다소 훼손되어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의 후진들이 물건을 아낄 줄 아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부모들, 특히 여성들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

고자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의 맹점중의 하나는 과외교육인데, 직접적으로 입시를 위한 과외는 고사하고, 그밖에도 부모들은 피아노, 속셈, 바이올린, 수영, 스케이트, 미술, 태권도 등 많은 분야에 걸쳐, 특별교사를 채용하여 자녀들에게 몇가지씩을 가르치고 있다.

저시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린이들의 지능이나 예능의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심신과 금품의 낭비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은 이것이 모두 과소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부모들은 남이 하나까 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자녀의 능력이나 천품(天稟)이야 어찌됐든 그들을 위해 돈을 써야 스스로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비단 과소비가 억제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

이 점에 관해,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그 전통적인 훌륭한 능력을, 자녀의 성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다분히 맹목적으로 특별 지도를 하는데 쓰지 말고, 보다 독립적으로 냉철하게 개성있는 자녀교육을 하는데 써 줄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

-이 글은 과소비추방여성운동연합 주최로 6월20일 함교서관에서 거행된 과소비추방여성실천결의대회 주제강연 내용입니다.

김정옥 선생님

이화여전 문과와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교수, 동구여중 교장을 역임했고, 여인이 되신 현재도 동구여상 이사장으로, 대한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출판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정옥 선생님. 최근 아버님의 유품을 모아 「小峰 金達河 시집」을 출간하기도 하는 등 끊임 없는 활동을 하고 계신 김정옥 선생님을 댁으로 찾아뵈었다.

— 이 나라 여성운동, 여성교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김활란 선생님의 조카로서 그분을 곁에서 가까이 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셨을 줄로 압니다. 결과적으로 김활란 선생님 시대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초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어느 분보다도 소상히 접할 기회가 많으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각 시대별 여성운동의 특징이랄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윗대(代), 즉 저의 이모님 이셨던 김활란 선생님 시절에 여성운동을 했던 분들은 거의 하나님의 계시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세대에서는 국가적 사명감으로 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상황에서 사회적인 것 보다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거지요.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국가적, 사회적 사명감이라든가 하는 소명의식보다는 개인적으로 실력



을 기르는데 힘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세대인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기르려는 노력에 덧붙여 개인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합니다. 개인주의 풍조가 팽배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 김활란 선생님과 이모와 조카사이라는 것 이상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고, '이모님 김활란'이라는 제목의 전기까지 집필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이

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 이모님은 실제 나이가 저보다 13살 위였는데 정신연령은 20년 정도 앞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 지닐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황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요구했고, 그분은 그러한 능력에다 높은 센스를 갖추고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성단체를 조직하실 때는 여러 전문

학교를 모두 망라해 많은 인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능력을 펼치게끔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 결과 여러 여성단체를 조직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교라든지 또는 다른 연고 등의 정색을 깨고 모두가 힘을 합해 지도력을 펼쳐나가기로 회합하셨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저변확대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 이화여전에서는 영문학을 하셨는데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에서는 교육심리학을 공부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 해방직후 국어를 가르쳐야 하는데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대소설에 관심이 많았고, 한문을 좀 안다는 것 때문에 김활란 박사가 저에게 이화여전에서 국어를 가르쳐보라고 해서 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계속 가르치려면 좀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대학에서 교수 재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저에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문학이나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육심리를 전공하는게 좋겠다는 권유도 있었고, 저도 그럴 필요성을 느껴 교육심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후 청년심리, 육아심리 등을 배우면서 교육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인간을 위해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거기서 배운 것을 계속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지금은 미국에 한국인 유학생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선생님이 공부하실 당시는 그 수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을텐데 유학시절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한국인 학생이 한명도 없었고 100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씨애틀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면 저는 100마일 거리를 달려가 그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는 주로 외국문화에 대한 놀라움, 자연스러우면서도 조직적으로 되어있는 교육제도 등에 대한 것이었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여기서 배운 것을 활용해 사명감을 갖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다짐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처음 미국에 가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언어문제였습니다. 한

국에서 영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부딪히보니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사전하고 싸우다시피하며 영어공부를 하느라 잠 한 번 실컷 자보질 못했는데 한 1년정도는 강의내용의 반도 못전질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강의내용 중 대충 알아들은 내용을 한국말로 필기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은 비슷한 스펠링으로 영어로 적어놓기도 하고 그나마도 잘 모르겠는 것은 나중에 친구노트를 빌려보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공부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날 과학선생님이 노트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를 어쩌나 싶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노트 맨 뒤에 "This notebook is for me, not for you."라고 적어서 노트를 제출했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교수가 제 노트를 보면서 자신이 비로소 국제적인 교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더군요.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동양학부에서 한국문학사 강사를 지내셨는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들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제가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BA를 받은 직후 한국에서 6.25가 터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미국에 1년정도 체류하는 동안 버클리에서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동양학부에서 외국으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사를 강의했었습니다. 대개 기독교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들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한국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 그러한 여러 종교를 바탕으



1953년 이화여전 재직시 와생들과 함께

로 형성된 우리의 문화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중국문화가 우리 문화의 저변에 깔려있으며, 군사적 문화라 할 수 있는 일본문화도 함께 공존하는 문화양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습니다.

— 일생을 후진교육에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 이화에서 23년간 학생을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기억은 한미회담이 열렸을 때였습니다. 이화에는 별로 데모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처를 맡고 있으면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한미회담과 관련해 데모에 가담했던 학생이 여럿 잡혀들어가는 바람에 난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방치해둘 수도 없고, 놓아달라고 부탁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해서 난감했었지요.

그래도 그 당시는 데모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무법적인 현상은 없었습니다. 요즘의 데모양상을 보면 대학생

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상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김활란 선생님 시절에 여성운동을 했던 분들은 거의 하나님의 계시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세대에는 국가적 사명감으로 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독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상황에서 사회적인 것 보다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거지요.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마음도 하나가 되었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국가적, 사회적 사명감이라든가 하는 소명의식보다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기르는데 힘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세대인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기르려는 노력에 덧붙여 개인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은가 합니다. 개인주의 풍조가 팽배해 가는 것인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생각됩니다. 도의적인 혁신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근 아버님의 시집을 번역, 출간 하셨는데, 불편하신 몸으로 그 책을 출간하신 것을 보며 참 대단한 노력을 하셨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요.

■ 제가 평생동안 읽어왔던 아버님의 유필 중에서 시 50편가량을 이번에 번역했습니다. 글씨쓰기가 불편해 힘이 좀 들긴했지만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12월에 원고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출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되신 아버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자한자에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정옥 선생님의 부친이셨던 小峰 김달하 선생은 의친왕의 부스승을 지낸 분으로서, 애국지사로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었는데 밀정이란 이름하에 의열단 단원에게 희생당하였다.)

— 현재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 동구학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대한YWCA연합회의 명예연합위원, 후원회이사, 출판위원으로서 Y와 계속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자 합니다.

(대담·정리: 오혜란)



이달의 여성계동향

6월의 여성계는 법제도하에서 자행되는 여성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이 큰 물줄기를 이루었다.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기혼여성들을 위한 탁아관련입법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됐다. 법률에 대한 이같은 여성계의 관심은 법이 모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법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의 추방을 위해 여성계가 모처럼 한데 결속한 것도 이달에 거둔 주요 수확중의 하나로 평가할만하다.

홍은희 (중앙일보 생활과학부 기자)

개정가족법에 따른 세법 등의 여성차별조항 개정 요구 구체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족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개정 민법에 맞도록 관련법들을 개정해야하며, 특히 세법 등에서 개정 민법의 정신을 살려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바꾸어서 개정가족법이 실효를 거두게끔 해야한다는 여성계의 요구가 세미나·공개강좌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개발원과 가족법학회는 20~21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정가족법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병호 서울대 교수는 의료보험법·군인보호법·국가배상법상의 위자료 배상 청구권자인 직계존속·비속은 개정민법의 적용을 받아 모계혈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조상의 공훈에 의한 특별수호는 부계혈족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숙자 명지대 교수는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줄 것을, 박동현 경북대 교수는 기여분재산

에 관한 세제는 상속세가 아닌 취득세가 돼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이양자 세무사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현행 증여재산세 배우자 공제액(2백50만원)도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학회도 22~23일 서울여대 소강당에서 「여성과 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법과 성평등」 「사회복지관련법과 여성」 등을 통해 기본법 이외의 법률들에 대한 여성차별조항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에 따른 탁아비 등 손비계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크게 불리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이혼했을 때는 전부인이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의료보험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2중부담을 하는 모순이 있음이 지적됐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은 7월5일 백인회관 강당에서 「상속세법 - 어떻게 개정돼야하나」라는 주제로 시민공개강좌를 열고 배우자공제제도와 균형을 맞춘 「이혼배우자공제」 제

도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탁아관련 입법 논란

탁아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열기를 더해가자 뒤늦게 민자당도 이에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자당측은 가칭 영·유아보육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신영순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독립법의 필요성, 주무행정부서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대상·운영·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속출, 탁아입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민자당측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할 법률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돼 있었으나 유아교육학자들의 거센 반발·지역탁아소연합회 등에서의 안에 대한 불안의 파고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백가쟁명」의 장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유아교육학자들은 민자당의 안뿐 아니라 이미 국회에 제출된 평민당의 탁아복지법(안),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탁아소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달의 여성계동향



개정가족법 관련 학술세미나 - 한국여성개발원

등이 모두 어린이의 보호·양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교육을 도외시키고 있음을 문제삼고, 15일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 탁아와 교육을 통합하여 문교부로 일원화하여 어린이를 위한 기본법이 되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결국 민자당측의 탁아관련입법은 뜻하지 않게 유아교육학자들의 반란(?)으로 법률안조차 확정되지 못한채 임시국회를 맞아 이번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소비추방범여성 운동연합 결성, 과소비 추방에 앞장서

과소비가 망국병으로까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여성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운동이 벌어져 관심을 모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70개 여성단체는 과소비추방범여성운동연합을 결성하고 매월 5일을 「과소비 추방의 날」로 정하는 한편 월별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산하단체마다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기로 했다. 지난 4월말 제2정부장관실이 주최한 춘천 여성계지도자 세미나에서 올해 주요활동과제로 「과소비 추방운동」을 결의한 여성단체

들은 여협 등 8개단체로 과소비추방추진준비위원회를 5월18일 결성, 두차례의 회의 끝에 20일 향균회관 대강당에서 「과소비추방 범여성 실천결의대회」를 가짐으로써 정식 출범했다.

여성계가 이처럼 대규모로 결속한 것은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결집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90년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여성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성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제2회 한국여성 정치논단으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이 세미나에서 90년대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제도권·재야할 것 없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 한편 그간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1차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만 있었을 뿐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정책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협, 한국의 시민운동을 왜곡한 미국대표부에 대해 반박

소비자단체·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돼 벌이고 있는 「전전소비생활운동」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 정부가 매우 조종을 하고 있다」고 주장, 소비자 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상무부 무역대표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의 시민운동을 왜곡한 미국대표부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 이를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성명서는 「과소비추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최소한의 자구책」임을 천명하고, 「미측의 발언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으면 시민운동까지도 잠재울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로서 심히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주부클럽 김천주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최근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온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이 5월 제18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아 여성계를 빛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

냈다. 89년부터 환경보호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온 김회장은 지난 2월 △음식물 찌꺼기는 검정비닐 △ 종이·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노란 비닐 △가연성 쓰레기는 분홍비닐에 각각 분리하여 버리자는 「3색 분리제」를 제안, 이를 회원들을 통해 생활화하기로 했던 것. 6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쓰레기 분리수거는 3개월여만에 31곳으로 늘어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측은 김회장의 훈장수여 이후인 21일에도 「재활용 쓰레기 및 가연성 쓰레기 처리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상 「상 받으면 끝」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뉴스레터 「여성정치」발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15일 뉴스레터 「여성정치」를 발간하며, 한 단계 도약을 시도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여성정치연구소의 선두주자적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7월 발족이후 3차례에 걸친 학술세미나·지방의회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치교실·대만총선시찰

단 파견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모두 12쪽으로 구성된 「여성정치」는 △여성정치 쉼터 △연구소 소개 △논단 △여성정치교실 △연구소 활동상 △회원동정 등으로 꾸며졌다.

대한Y 바른 삶 실천지침 마련

「바른 삶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YWCA연합회는 바른 삶 실천지침을 마련해 내놓았다. 바른 가정·바른 사회를 위한 11개 항목과 절제와분수생활을 위한 18개 항목, 퇴폐·향락병을 고치기 위한 9개 항목 등 모두 3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온가족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온가족이 식사를 분담하고 공동식사를 한다 △가족 모두 일찍 귀가하도록 노력한다 △부부간에 존댓말을 쓴다 △딸과 아들의 역할을 구별치 않는다 △절서지키기·차레지키기·줄서기를 실천한다 △수입상품을 쓰지도, 선물하지도 않는다 △외식을 절제하고 회식도 줄인다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1회용 생활용품을 덜 쓴다 △여행은 가족과 함께 한다 △자녀에게 바른 성교육을 한다 △술·담배·화투를 하지 않는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계간 「사무직 여성」발간

사무직 여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민우회가 계간 「사무직 여성」을 발간해 관심을 모았다. 10일 발간된 창간호인 여름호에는 늘어나는 여성의 불안한 고용을 기획기사로 실는 한편, 직업법 관련 판례로 89년 MBC 타자수 최효숙씨가 소송을 낸 「경건완중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다루었다. 「모성보호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우리의 주장과 함께 현장이야기로 한 직장내의 여성들 모임을 소개하고 있다. 모두 78쪽, 값은 1천5백원이다.

최이권 여사 별세

서울YWCA회장 등을 역임한 최이권 여사가 23일 별세했다. 고 박낙준 박사 부인으로 애국부인회 부회장을 거쳐 서울YWCA회관 명예회장을 지낸 최여사는 1946년 서울Y 회장으로 취임, 일제 탄압으로 폐쇄됐던 서울Y를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했다. 이후 30년 가까이 Y에서 활동해오면서 여성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발간한 뉴스레터 「여성정치」

스크립터

스크립터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방송에 '뜻'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없이는 힘든 일이 곧 이 일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수 많고 시간 많고 편하고 화려한 직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긴장시키고 소모시켜야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스크립터란?

스크립터란, 방송용 '말'을 써주는 사람을 일컫는 직업명칭이다. 파로는 구성작가, 방송작가라고 불리며, 드라마작가와는 구별된다. 모든 교양프로 뒤에는 스크립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까?

스크립터가 하는 일은 PD나 프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다큐멘터리프로에서는 '그림'에 맞춰 글을 실감나게 써내는 작업을, 정보프로에서는 신선한 아이템을 찾아내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일을 한다. 「PD수첩」같은 르포성프로에서는 글솜씨보다 기획에서 촬영·편집까지의 과정동안 아이디어와 구성감각을 보태는 일에 치중하게 된다.

PD의 경우 스크립터의 역할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으려는 이도 있다.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PD들만 있다면 스크립터의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

실제로 스크립터가 하는 일이 PD가 할 수 있는 일을 덜어주는 정도이거나, 원고를 쓴다해도 가볍고 상식적

인 말의 나열에 그친다면 무용론에 반박할 근거가 희박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 고참선배들은 나레이션 원고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림으로만 표현되기에는 부족한 메시지와 정서를 전달함으로써 글과 그림이 합쳐서 제3의 무엇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간단하지만은 않다. 방송 원고를 쓰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림이 풀으면 그 분량만큼 압축해야 하고 말의



이정근 (MBC, 교양제작국 스크립터)

순서보다는 그림의 순서에 맞추어 자연스러워야 하며 일상어이되 힘있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 말이 필요한 그림과 그렇지 않은 그림을 구별하는 '감' 등등이 그 기술에 속한다.

그러나 방송원고에 모범답안이 없듯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크립터가 되려면

스크립터는 학력제한이 없다. 공식 채용의 기회도 적다. 알음알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몇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최근 스크립터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다수의 방송인의 자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면 서 공제제도가 시행되었고, 양성기관도 생겨났다.

한국방송작가연수원과 한국방송위원회·KBS 교양구성작가협회 등에서는 수강생을 모아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있다.

MBC의 경우, 올 3월 공개시험을 통해 10명의 신인작가를 선발했다. 서

류심사·필기시험·면접을 거쳤는데, 구성능력과 글솜씨가 선발의 기준이었다고 한다.

스크립터가 되기 위해 특별히 공부할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탄탄한 글솜씨를 가꾸는 것이 좋겠고, 사물·사건의 현상 등을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늘 비디오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스크립터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방송에 '뜻'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에 대한 지극한 애정 없이는 힘든 일이 곧 이 일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수 많고 시간 많고 편하고 화려한 직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긴장시키고 소모시켜야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인정받는 스크립터의 조건

일에 있어서는 '사람존중'보다 '분명함'이 좋다. 스크립터는 PD와 짝이 되어 일하기 때문에 '부부사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부가 가장 이상적이듯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착사령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커플이 되어서는 안된다. PD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사람존중'으로만 치중하는 이들도 있으나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선배들의 충고는 새겨들어야 한다.

해서 예비방송인, 방송초보자들은 PD와의 관계정립에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 좋고 똑똑한 스크립터들이 환영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PD는 좋은 스크립터의 조건으로 '똑똑하고 미혼일 것'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선배



의 충고대로 오래 일할수록 다소 결구려더라도 능력있고 똑부러진 당찬 스크립터들이 인정받을 것이다. 그건 그들이 일하는 데서도 그만큼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정받는 스크립터가 되는 조건은 그것 말고도 더 있다. 선배들의 조언을 모아 정리하면 이렇다.

사회전반의 현상에 대한 관심이나 기본적인 문화적 소양이 PD보다 앞서야 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타고난 방송감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정확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스크립터는 문학가로도 성공할 만한 재능이 있어야 하며, 사건기자라도 할만한 순발력과 해박한 시사감각. 그런가하면 막노동자같은 체력, 유능한 비서와 같은 눈치와 똑똑함도 요구된다.

스크립터의 전망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이해가 불충분

한 상태에서 스크립터에 대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좀 요원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송의 확대와 함께 커져가는 교양프로의 비중을 감안할 때 꼭 유능한 직종이라는 점과 스크립터 자신들의 미약한 신분보장, 기준없는 보수, 부당한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태동이 시작됨으로써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엄격하고 단조로운 조직생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의 매력, 매인 곳 없는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이예겐 최적의 직업이 아닌가 싶다. 다만 그 매력의 반대급부로 일자리가 고정되지 못하고 능력이 떨어지거나 기회가 닿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일손을 놓아야 하는 위험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도전해 보라. ◆



근로여성고발창구 운영보고서

(1990. 4. 1~6. 30)
근로여성상담부

근래에 들어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퇴직을 종용받고 있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의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각 분야에 여성 취업자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88년의 경우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1. 고발접수내용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여성 고발창구에 접수된 고발건은 30여건으로 주된 내용은 부당해고, 결혼·임신으로 인한 해고, 직장내 폭행, 임금체불 등이다.

근래에 들어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해 퇴직을 종용받고 있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의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각 분야에 여성취업자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88년의 경우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함양된 소산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계속적인 결혼·임신·출산퇴직 압력 및 해고는 미혼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해야 할 것인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면서까지 직장을 고수해야 하는 지를 택일토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위법행위의 법적근거를 보면 헌법에 명시된 남녀평등권(헌법 제 11조), 근로자의 근로할 권리(헌법 제 32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남녀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 5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

는 근로기준법 제 27조 1항,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9조 등 이외에도 관련법의 위반행위로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시키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식의 불식을 위한 사회교육과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 확충 및 적극적인 근로능력의 개발, 여성차별 사례의 발생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여성단체들의 대응이 필요하고 여성근로자가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으로써 노조 내부에서의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사업장내에서의 육아휴직제 실시, 직장타이소 설치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사례연구

가. 부당해고

7. 사례1

(내 용)

지방의 X대학교 기성회직원(계약기간 1년)으로 임용되어 4~11년간 근로계약 갱신없이 장기간 근무해 오던 양씨의 4인은 지난 3월5일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정제절차 없이 책임용에서 탈락되었음을 구두로 통고받고 해고되었다. ('90. 4. '여성' p. 16 참조)

(해 결)

양씨의 4인은 X X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승소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양씨의 4인이 비록 1년 기간을 정하고 매년 재고용 형태로 고용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사용·종속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시켜왔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되는 것이 아니고, 조퇴·결근 사실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비록 예산감액으로 직원을 감축해야만 했다고 하나 양씨의 4인을 해고하고 바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없다.

또한 해고당시 양씨의 4인만이 기혼여성으로 이들만을 해고시킨 점과 신규채용 여직원 모두가 미혼여성이라는 사실로 보아 이유없는 해고이며, 정당한 정제절차없이 책임용탈락을 이

유로 구두통보의 형식으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정제절차의 하자라고 보고 이 점을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렸다.

나. 임신 및 결혼 퇴직종용

7. 사례1

(내 용)

지방M사에 PD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에 결혼하여 현재 임신 6개월인데 회사측으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할 때'라는 이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다. ('90. 4. '여성' p. 16 참조)

(해 결)

김씨는 X X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승소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X X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소판정 근거를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김씨가 입사시 프로듀서 공개채용에서 합격하였다함은 기본적 자질이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제작프로에 대한 모니터들의 비판의견으로써 곧 김씨가 무능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회사측에서 김씨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렸다.

7. 사례2

(내 용)

지방M사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결혼한 후 돌연히 단순기능직인 총무부로 발령받아 근무하던중 해고예고를 통보받고 지난 4월 26일 해고되었다. ('90. 4. '여성' p. 16 참조)

(해 결)

이씨는 X X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승소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여기서 X X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판정을 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근신 7일 및 사발서와 각서 제출과 근무평점불량 및 동료직원들과의 불협화 등이 해고대상으로서의 중대과실로 볼 수 없으며, 방송모니터들의 비판의견을 이씨의 업무부적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총무부의 업무량이 1일 약 20분에 불과한데도 연봉 18,000,000 원의 고임금을 지급함이 불합리하여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사규에 의해 해고시켰다고 하나 이씨가 아나운서직에서 총무부로 전보발령되었고 회사측의 업무부장 지시에 의해 이씨가 업무를 수행하려왔다면 1일 20여분의 업무량 할당은 이씨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지시이므로 하자가 없고 단체협약 제 17조 3호에 의하면 배치전환을 이유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측이 이씨를 발령후 업무량에 비해 고임금지급이 불합리해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치가 못하다는 것이다.

근로여성고발창구 접수현황 (1990. 4. 1~ 6. 30)

유 형	내 용 및 조 치
부 당 해 고	4 / 2. 7~10년간 계속 근무한 일용직 직원들을 계약단료와 인원감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함 ⇒ 이들을 해고한 후 신규직원 6명을 채용함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내도록 권유 ⇒ 승소판정 받음 ⇒ 학교측에서 이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해 계류중임. 5 / 25. 신입사원으로 채용후 경력사원이 필요하다는 2개월만에 해고함 ⇒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철회할 것을 요청해보고 철회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토록 권유. 6 / 23. 후두염이 발생해 병가신청하자 해고함 ⇒ 진단서를 발부받아 업무상 기인한 것을 증빙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해고는 병가중에 한 것으로 부당해고이므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철회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토록 권유. 6 / 23. 기능직 타자수로 12년 근무중에 갑자기 일용직 사환직으로 발령남 ⇒ 인사담당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은 부당해고에 준하므로 철회토록 요구제함 ⇒ 원직에 복직됨.
결 혼·임 신 퇴 직 종 용	4 / 11. 결혼을 하자 해고예고후 대기발령남 ⇒ 회사측의 해고이유는 사규의 '업무상 불필요할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 함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내도록 함 ⇒ 승소판정받음 ⇒ 회사측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한 상태로 계류중임. 4 / 11. 임신6개월인데 갑자기 해고예고후 해고함 ⇒ 회사측의 해고이유는 사규의 '업무상 불필요할 때'에 해당된다고 함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내도록 함 ⇒ 승소판정받음 ⇒ 회사에서 재심청구한 상태로 계류중임. 4 / 27.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결혼하고 출산한 후 출근하자 학교측에서 '1달치 월급을 줄테니 그만두라'며 사직강요 함 ⇒ '분위기를 쇠신한다'는 것이 해고하려는 이유임 ⇒ 학교측에 해고철회토록 요구하고 철회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 권유. 5 / 15. 4월28일날 결혼을 하고 출근하자 회사에서 '결혼했으니 그만두라'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 ⇒ 사직서 내지말고 퇴직종용 철회토록 요구하고 철회치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토록 권유. 5 / 19. 출산후 출근하자 퇴직종용함 ⇒ 사직서 쓰지말고 회사측에 계속 일할 것임을 주지시키고 그래도 계속 퇴직종용하면 노동부에 진정 권유. 6 / 5. 비서실에 근무하던 중 결혼하자 퇴직강요함 ⇒ 학교측에서 '학교 형편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고장 보냄 ⇒ 노동부에 고발 권유. 6 / 20. 결혼할 당시도 퇴직종용했으나 계속 근무했음 ⇒ 현재 임신중인데 퇴직을 종용함 ⇒ 사직서 쓰지말고 출산일쯤에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계속 근무토록하며 해고시 노동부에 고발 권유.
임 금 체 불	4 / 4. '89년에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함 ⇒ 회사는 현재 경매중임 ⇒ 사장에게 직접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지급 요청하고 지급치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토록 권유 4 / 28. 월 90,000원 받기로 하고 일을 함 ⇒ 두달치 월급을 안줌 ⇒ 재청구했으나 물건이 팔리면 준다고 함 ⇒ 소액심판 청구 권유. 5 / 4. 1년8개월 근무후 퇴직함 ⇒ 퇴직금 지급치 않음 ⇒ 소액심판 청구 권유 5 / 31. 2달치 월급을 지급치 않음 ⇒ 소액심판 청구 권유. 5 / 31. 2년 근무후 퇴직함 ⇒ 퇴직금 지급치 않음 ⇒ 소액심판 청구 권유. 6 / 9. 아침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함 ⇒ 회사에서 2시간 더 연장근무하라 함. ⇒ 전에는

유 형	내 용 및 조 치
	연장근로수당으로 25,000원 지급했으나 현재 지급치 않음 ⇒ 노동부에 고발 권유. 6 / 26. 월15만원 지급기로 계약후 근무했으나 미숙련이라면서 3만원을 제하고 12만원만 지급함 ⇒ 사용자가 본래 미숙련공임을 알고 채용한 것이므로 지급의무있음을 주지 ⇒ 재청구해 보고 지급치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 권유
차 별 대 우	5 / 24. 타자수·엘리베이터 걸 등 여성직종으로 국한한 직종은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결혼퇴직까지 받음 ⇒ 노동부에 고발 권유. 5 / 30. 회사사원주택 분양청구권 자격을 남자직원에게 한함 ⇒ 여직원끼리 합의해서 회사측에 시정요구토록 권유 ⇒ 시정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 권유. 6 / 19. 동일노동을 하며 경력도 더 많은데 월급은 적게 지급함. 시간외 수당 및 근로시간도 제대로 안 지급 ⇒ 내규에는 임금을 높게 책정해 놓음 ⇒ 사장과 타협해보고 시정치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권유 6 / 29. 교육공무원중 부부교원의 경우 남편근무지를 기준으로 발령남 ⇒ 문교부에 항의했으나 시정안됨 ⇒ 다른 지역은 이러한 기준이 없음 ⇒ 교육청에 시정토록 요구 권유
직 장 내 폭 행	4 / 23. 남자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얘기중에 갑자기 따귀때림 ⇒ 평소에도 욕설 등 언어가 난폭했음 ⇒ 폭행죄로 고소하고 회사측에 인사징계 요구했음 ⇒ 회사측에서 본인을 지방으로 발령내 사표냄 ⇒ 사표제출전에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을 냈으면 구제가 가능했었으나 사표를 냈으므로 구제가 어려움 4 / 30. 상사가 말을 안듣는다고 뺨을 때림 ⇒ 폭행죄로 고소하거나 공개사과토록 권유 6 / 4. 동료직원이 항상 언어사용을 불손하게 하던 중 반말을 사용해 이에 항의하자 건방지다며 따귀때림 ⇒ 방어하려고 컵을 던졌는데 이것이 상대방 손에 맞아 상처가 남 ⇒ 치료비 전액 요구함 ⇒ 폭행은 양당사자가 다한 것이고 원인 제공을 하였으니 치료비 전액 부담은 부당하고 일부는 부담해야 할 것을 주지.
기 타	4 / 18. 교대근무하러 가던 중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함 ⇒ 회사측에 산재처리 요구하자 지급치 않음 ⇒ 산재처리는 불가능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을 주지. 4 / 26. 신입여사원이 입사해 기존에 공동으로 하던 청소를 하지 않음 ⇒ 불러서 얘기해보고 듣지 않으면 업무협조를 하지말고 관망토록 권유. 4 / 26. 입사후배인 남자직원이 팀장이 된 후 계속 여직원에게 개인적인 잡일을 시킴 ⇒ 업무외 일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득시켜서 고치토록 권유. 5 / 30. 기존 회사의 상무가 회사를 설립한다면서 스카우트제의를 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 계속 기다리라며 차일피일 미룸 ⇒ 상무를 직접 만나 타협토록 권유.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그간의 여성의 경제참여증대와 기여만큼 여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랐는지, 혹은 경제적 지위가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는가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여성의 취업은 여전히 저임금, 저소득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열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1. 여성의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협의로 해석하면 일정한 직장에 취직하여 임금이나 봉급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나, 광의로 해석하면 인류의 존속에 필요한 경제적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질서 하에서 생산하고, 교환·분배·소비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류의 삶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즉 가족들의 필요한 음식을 장만하여 재생산 노동의 힘을 축적시키고, 집안을 가꾸고 관리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각종 가사노동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거나 공장근로자로서 직접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노동의 담당자로서, 또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유통에 참여하는 교환의 담당자로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제는 생산, 교환(분배), 소비의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여성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경제질서의 형성자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은 노동운동과 소비자운동에 주체로서 참

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경제질서 창조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2. 생산자로서의 여성

협의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생산자로서(또는 직업인으로) 한정하여 살펴 보더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에 26.8%에서 1989년 43.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기간중 여성들이 직접상품과 용역의 생산노동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따른 노동집약적인 섬유·전자·봉제 등의 수출산업 부문에서 저임금의 연소여성 노동력을 현저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의 청장년 이농과 도시 취업에 의한 농촌노동력이 부녀화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즉 농촌에서는 종래의 남성노동력에 대한 대체노동력으로 중고령의 여성인력을 활용하게 된 것인데, 예컨대 농촌여성의 경제참가율은 40~44세의 경우 60년대 40.6%에서 80년에 71.5%로 증가하였고, 50세 이상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24.1%에서 46.7%로 급증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 100미만의 수준에서 오늘날 \$ 5,000대를 바라보는 수준으로 고도성장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력이 적극 공헌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도 여성인력의 커다란 공헌없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여성의 경제참여증대와 기여만큼 여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랐는지, 혹은 경제적 지위가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는가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여성의 취업은 여전히 저임금, 저소득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열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직업사회·능력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도 여성 노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왜 여성은 저임금·저소득부문에만 집중 활용되며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간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유의 대부분이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 관행 및 고정관념에서 비롯하고 있다.

3. 경제활동에서의 여성차별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흔히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보수주의적 입장이나 논리는 '여성의 노동력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남녀간 대우의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과연 여성의 노동력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

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해 있는 것일까? 그러나 여성은 실제 남성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할 때라도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우리사회에서는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세일 교수(1984년)의 남녀임금격차 문제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6년 현재 남녀임금 격차를 100으로 놓았을 때 학력·경력·연령·근무연수 등 생산성차로 인한 부분이 68.54이며 직종차별 9.93, 임금 및 내부시장 차별 부분이 21.53임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임금의 60%를 받고 있는데, 교육·훈련·경력

·근로시간·직장거리·이동비용 생산성과 관련있는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를 33~68%까지 설명하고, 23% 정도는 생산성과 관계없는 직종 및 고용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여성은 경제활동에서 분명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은 취업기회에서부터 제한받고 있다. 현대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간편화시켰으며, 여성 삶의 변화 - 수명연장, 소수자녀, 핵가족화와 편리한 가옥구조, 다양한 가전제품 보급, 의류와 식품의 간소화 및 시장공급 등은 여성을 가사노동과



양육에서 보다 자유롭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자아실현 욕구의 증대 등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교육 차별은 빠른 속도로 축소되어 상급학교의 진학률의 남녀차는 그리 크지않

게 되었다. 1986년 현재 대학진학률은 남자의 경우 고졸자의 39.7%가 여고생의 경우 32.6%가 진학함으로써 양자간의 차이는 많이 축소되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희망 태도를 살펴 보더라도 여성은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 안주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는 신화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자대학 재학생의 96.6%가 취업을 원하고 있고(정세화외:1988), 도시 중산층 기혼여성의 92.8%가 평생직을 갖기를 희망하며, 도시주부의 84% 이상이 '여성도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여성의 취업수준은 43.1%(남성 73.4%)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여

성에 대한 취업기회는 노동시장에 불황이 올 경우 여성에게 더욱 제한적이며, 해고시 여성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1988년도 실업률은 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도시지역 실업률과 특히 고학력 여성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예컨대 대졸자의 취업은 남자의 경우는 1976~79년에 80~81%에서 1985~87년에는 52~57%로 하락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76~79년의 50~56%에서 '86~87년에는 27% 수준으로 2배 정도 크게 하락했다.

이처럼 여성은 취업기회에서부터 제한받고 있고 고학력 여성은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

2) 여성은 저임금을 받고 있다. 여성의 임금-남성임금의 50.9%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지급형태를 적용하고 있고, 여성의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다해도 너무 큰 격차를 나타낸다. (표 1 참조)

예컨대 같은 학력에 남녀가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을 제공할 경우라도 임금격차를 보인다. (표 2 참조)

표 2. 성별 임금격차의 추이

	남 자	여 자
목 표 ('91)	100	90
실 태 ('87)	100	76
('83)	100	74

고졸 생산직 초임기준, 자료: 노동부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을 근속년수와 연관 짓기도 하나, 여성은 승진·승급·배치·교육훈련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근속년수가 길면 갈수록 남녀간 임

금격차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3) 여성은 저임금·저소득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가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부여된 직종 또는 전문직에서는 여성을 차별적으로 배제한다. 반면 보수가 낮거나 사회적 지위(위장)가 낮은 직종, 미숙련·단순직종, 가사·서비스직 및 여성의 서비스를 상품화 하는 직종에 여성취업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취업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7년 현재 행정·관리직은 0.1%, 전문기술직은 5.6%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3 참조)

1975년 미국의 경우를 보면 보수가 낮은 5개 직종에 여성취업자의 75%가 집중되어 있는데 가정부의 98%, 공인간호원의 98%, 국민학교 교사의 85%, 사무직 77%, 서비스 부문 58%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수가 높고 명망있는 직종인 판사·변호사 7%, 의사 10%, 약사 14%, 대학교수 9%, 기업중역 2%, 상원의원 1%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조차 성차별을 종식시키려는 여성운동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4) 같은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 남성은 상위직, 행정·관리적인 반면 여성은 하위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상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교사의 비율(1988년 현재)을 보면 국민학교 47.3%, 중고등학교 31.5%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교장은 3.2%, 여교감은 4.2%에 불과하다. 또한 문교부의 고급행정직인 교육장학관, 장학사 121명 중 여성은 6명으로 0.05%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직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봉제분야에서도 재단사·미싱사 등은 남성이 많고 여성은 '시디' 등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수가 많은 음식점의 주방장은 남성이 대부분이다. 흔히 여성과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는 직종에서조차 임금이 많거나, 상위직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5) 여성은 승진·배치·훈련·정년 등의 대우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예컨대 정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2

표 3. 직종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직 업	단위: %						
	1960	1966	1970	1975	1980	1983	1987
전문·기술및관리직	1.5	1.8	2.1	2.1	3.5	4.2	5.6
행 정 · 관 리 직	0.8	0.1	0.0	0.0	0.1	0.1	0.1
사 무 및 관 련 직	0.8	1.9	2.8	4.0	8.6	9.3	23.1
판 매 직	9.7	11.8	9.6	9.5	11.6	17.3	1.4
서 비 스 직	9.7	9.5	10.8	9.3	9.9	12.8	4.6
농 립 · 어 업 직	70.5	61.4	59.8	58.7	46.4	39.8	
생 산 및 관 련 직	7.0	13.6	14.7	16.2	19.9	16.6	6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표 1. 직종별·성별·근속년수·근로일수·근로시간수·월평균 급여액 및 연간 특별급여액

직 종	구 분	연 령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평균 급여액		연간 특별 급여액	
		1987	1986	1987	1986	1987	1986	1987	1986	1987	1986	1986	1985
전 직 종	남자	34.0	34.0	4.7	4.7	24.9	25.0	228.2	225.3	390,139	355,046	855,863	781,479
	여자	26.0	25.6	2.4	2.4	25.2	25.0	233.9	230.9	198,734	176,040	339,846	308,775
0/1 전문기술및관리직	남자	35.6	34.8	6.4	5.9	25.0	24.7	203.9	203.1	589,925	512,493	1,792,284	1,530,802
	여자	28.4	27.6	3.8	3.5	25.2	25.0	201.1	203.3	389,765	347,880	1,019,877	897,300
2. 행 정 및 관 리 직	남자	44.4	44.4	8.5	8.1	25.3	25.1	205.5	203.5	753,723	701,397	1,745,498	1,587,425
	여자	46.5	46.3	6.7	5.3	25.3	25.3	204.9	203.5	639,252	623,839	986,127	1,107,948
3. 사 무 및 관 련 직	남자	33.4	33.7	5.6	5.6	25.1	24.8	210.3	207.5	416,677	387,634	1,165,644	1,090,620
	여자	23.6	23.7	3.0	3.0	25.1	24.8	210.5	209.3	218,793	200,740	519,702	497,648
4. 판 매	남자	30.5	30.1	3.1	3.3	25.2	25.0	211.7	206.6	379,376	319,768	812,935	845,803
	여자	22.9	22.6	1.8	1.5	25.3	26.7	219.5	227.4	192,622	166,087	354,357	270,534
5. 서 비 스	남자	40.9	40.5	5.0	4.8	24.6	25.5	228.2	224.6	272,184	245,509	543,560	518,807
	여자	38.5	38.4	3.2	3.3	25.4	25.6	218.4	220.0	181,515	162,429	278,522	275,754
7/8/8 생산및관리직종사자 운수장비운전사 및 단 순 노 무 자	남자	32.5	32.5	3.7	3.7	24.7	25.0	242.3	239.4	314,019	282,314	493,379	441,118
	여자	25.8	25.3	1.9	2.0	25.2	25.0	246.4	242.1	175,798	152,295	220,736	190,556

● 월평균급여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 기준
() 내의 수치는 남자의 급여를 100으로 한 여자의 급여수준(지수)을 나타냄.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년 현재 100인 이상 기업체 45%가 성별정년을 적용하고 있고 남성은 대부분 55세 이상인데 비해 여성은 모두 54세 이하이고, 이중 45~49세가 49.5%, 39세 이하도 16.6%에 달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4. 직장여성의 발전 방안

직장여성의 지위향상과 갈등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분야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차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동시에 극복해야만 한다. 가시적인 차별로는 앞에서 설명한 제도적인 성차별의 측면이 되겠고, 불가시적 차별로는 관념적인 측면으로써 성차별적인 관행, 고용주나 직장동료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및 고정관념, 가족이나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편견이 포함된다.

오늘날 UN을 비롯한 세계각국은 인간평등사회의 구현인 인류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여성의 발전과 동참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되었다.

앞으로의 사회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고용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은 사회정의와 형평, 공정내지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써 차별하는 고용관념 때문에 능력발휘의 기회가 제한되고, 노동가치가 평가 절하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면 자원의 커다란 손실이다. 이러한 의미

앞으로의 사회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고용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은 사회정의와 형평, 공정내지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써 차별하는 고용관념 때문에 능력발휘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면 자원의 커다란 손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효율과 사회형평에 반하는 고용차별적 제 관행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에서 경제적 효율과 사회형평에 반하는 고용차별적 제 관행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여성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의 어려운 우리경제 여건에서 취업동기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취업기회와 바람직한 대우가 주어진다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동질노동가치를 제공했을 때조차도 제 대우를 못 받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선 여성자신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노동력을 개발해야 됨은 물론이며,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일반적으로 여성취업자에게 갖는 우려, 즉 '여성'은 육아의 영향으로 직장에 불성실할 것이다. 결혼전(출산전)까지의 일시적 취업이거나 심심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또는 취미로 직장에 다니는 것일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성은 당연히 직장을 포기할 것이다'는 등의 사회적 편견과 통념을 불식시켜야만 한다.

또한 여성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내면화된 이러한 의식에서 탈피하여 평생직장인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정이정신을 배양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여성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 평배한 남녀차별에 대한 의식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국가 사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은 물론 가정, 학교, 사회교육과 정에서부터 배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노조와 공존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동안의 노조활동은 남성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를 대변하거나 몫을 쟁기는 일에는 소홀했다. 효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동운동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제 몫을 쟁길만큼의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상담원과 노조 여성간부들의 헌신적인 기여가 기대되는 바이다. ♣

-이 글은 본회가 주최한 제3기 노동상담 실무자 교육 내용중 일부를 전재한 것입니다.

다음은 7월 2일, 3일 본회 주최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노동상담 실무자 교육중 본과토론과 종합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상담 실무자교육 토론내용

제1분과

토의자: 정경자·박미형·김선주·허영재·민지은·김정란·윤선화·정귀순·김봉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의 단합과 여성간부의 수적 확대 필요



제조업종 6인과 서비스업종 3인으로 구성된 제1분과는 근로자로서의 여성, 노조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으로는

첫째,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문제이다. 남성인 경우에는 취업후 2~3

년 뒤에는 승진을 하고 있으나 여성은 5~6년을 근무해도 승진이 어렵다. 따라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직종이라면 승진차별에 대한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철폐해야 한다. 또한 남성과 같은 직급에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이 선구자적 자세로 능력발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

으로써 여성을 승진시키지 않는 이유들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언어폭력문제로 여직원에게 대한 호칭사용에서 가장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면 여직원을 부를 때 "○○야" 심지어는 "너"하는 식까지 있다고 한다. 그 해결방안으로 여직원들 만이라도 먼저 통일된 호칭이나 존칭을 사용해서 회사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전직원의 동조를 얻는 방법으로 바른 호칭사용을 유도하자고 했다.

셋째, 여성은 주택자금 등에서도 부당대우를 받는다. 즉 같은 작업인으로 동등한 경제적,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자금이자일 경우 기혼남성에겐만 혹은 남성에 제한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는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조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법률행위·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와 법률의 규정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결혼후 직장생활의 저해요인으로 육아를 들고 있다. 과거에는 육아를 사적인 문제로만 규정, 자신의 가정내에서 해결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천부적 임무인 모성(母性)의 역할은 인류의 문제이자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타아문제는 국가나 기업에서 그 시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장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조에도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체조합원의 수에서 여성조합원의 수가 적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나 의사 결정과정에서

여성간부의 수는 희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여성참여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성단체나 연구원 등에서 활발한 교육 실시와 노조 자체 내에서 연수나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인식시켜야 하며, 노조내에서 여성들의 단합을 모색키 위해서 여성주관의 서클활동이나 친목회 등을 활성화하여 여성조합원을 단합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조합원의 수적인 확대를 꾀해야 한다.

(발표자: 박미향·태연물산 노조사무장)

제2분과

토의자: 김애숙·김보기·정인숙·설국강·임정현·홍연숙·김순자·이경자·노순정·서향순·정순화

직종별 교육을 통한 연대의식과 정보교환 필요



오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다수인 제2분과에서는 오랜 직장생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조합간부이자 근로자로서 이중의 역할에 따른 애로점을 주로 다루었다.

직장여성으로서의 불이익으로는 승

진의 직제문제 뿐 아니라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순업무만 주어지고 비중 있는 업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여성들 자신이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직업을 가졌다는 의식

을 버리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업무처리에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적으로는 노조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장기근속에 따른 직업병과 여성신체상의 특징으로 인한 생리휴가를 얻는 문제, 언어폭력 등이 직장여성에게 갖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힘이 필요한데 실력있는 조합은 아무런 존재의의가 없으며, 오히려 조합간부이자 근로자인 노조원인 경우에는 이중고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노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노조의 남성들에게 같은 동지로서 여성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이것이 조합의 의견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전체조합원의 25%가 여성인 노조에도 조합간부로서의 여성은 극소수이므로 해서 단체협약서 협의과정에서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참여유도와 여성 스스로가 권리를 갖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직원에게 이익을 주는 단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직원에 대한 통일된 호칭사용 등과 같은 작은 일부터 해결하고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여성노조원끼리의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종별교육을 통한 연대의식과 정보교환을 하고 여성단체들의 연구기관들이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표자: 노순정·통신노조 서울지부 집행위원)

제3분과

토의자: 안상현·홍옥려·임미향·서승희·오미숙·이연화·홍명숙·황초연·박신영

여성문제가 노조의 문제임을 이해시킴으로써 문제 해결



제3분과는 제1분과, 제2분과에서 토의한 내용과 동일한 점들을 제외하고 노조결성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여성조합원의 활동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토의내용을 보고한다.

우선 가내공업인 소규모의 생산직종은 장시간의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이나 지연관계 등으로 구성된 직원이 많아 노조결성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노조결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기업이 조합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남성들에게 동일한 업무를 주면서도 단지 직위만을 승진시켜 버림으로써 노조를 탈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체결시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남성만이 전부 조합간부인 곳에서도 여

성문제가 노조의 문제임을 이해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정당내의 여성참여 문제로 여성의 수가 적고 당직자로서의 여성의 수는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정치권내의 여성참여의 결여는 여성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결혼한 여성의 직장생활 저해요인인 육아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탁아법실시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잘 아는 여성들이 정책토론회에 참가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면 정책에 반영이 용이하고 여기에 여성단체 등이 압력단체 역할을 하면 조기에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이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참여를 시도하고 여성기관들이 이러한 여성들의 자질을

키우고 뒷받침하여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노조내에서도 결정권을 갖는 곳에 여성간부가 없으므로 해서 여성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듯이 정치권에도 실질적 발언권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곳에 여성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여성조합원과 여성들의 활동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식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유대감 확대를 위한 회차발간이나 취미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외부적으로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정치권 여성 참여와 압력단체로서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발표자: 홍옥려·원자력병원 노조원)

종합토론

사회: 공인노무사 윤자아

사회: 열띤 토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중요하고 공통된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로서의 여성의 문제점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의 부족도 여성이 평생직업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서순희(서울카톨릭 노동장년회): 원칙적으로는 평생직업을 갖지 못하는데에는 장기근속의 여성에게 단순업무만 제공하고 비중있는 업무를 주지않으며, 입사동기인 남성과의 임금격차 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 등이 그 이유가 된다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조를 통해 해결을 한다고 보면 여성들 자체의 문제점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 때

문에 마지못해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의식을 교육을 통해 개조해서 당당히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결손으로 생산라인의 마비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중요성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프로근성으로 업무에 임하고 권리를 찾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노조내에서 여성간부의 부족이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여성간부의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현 (평민당 여성국): 정당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같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여성의원 의석할당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수도 여성참여가 활발해질 때까지는 간부의식 할당제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향: 여성조합간부의 수의 부족은 여성조합원의 참여 부족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참여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문집발간이나 서클활동 등을 통한 끊임없는 간접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여성간부의 확대방안은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간부의 부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노조원으로서 남성 또한 협력자임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



근로자로서의 여성이 끊임없이 알고자하고, 노조의 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면 남성과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당하게 끌고 나가는 사회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직하다고 봅니다.

여성조합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조내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외부환경 조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정: 우선 외부환경으로서 여협과 같은 단체에서 노동상담실무자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러한 업무를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전문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합법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면의 경험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자신감과 여성조합원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근로자로서의 여성이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알고자하고, 노조의 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면 남성과 함께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당하게 끌고 나가는 사회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호응과 열띤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현행 여성지의 문제점 분석

오혜란 (본회 출판공보부장)

여성지들이 담고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표지전면에 가득 달린 호객성 제목, 보물찾기하듯 애써 찾아내야하는 목차, 광고에 파묻혀 본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본문내용, 상품보다는 여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광고,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타인의 사생활 폭로, 그럴듯해 보이나 별로 실속없는 생활정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원색화보 등등 그 어느 여성지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양의 대중문화를 접하며 살고 있다. 현대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TV를 비롯하여 라디오, 영화, 연극, 신문, 잡지 등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대중문화를 접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6공화국에 들어서 정기간행물 등록이 수월해지면서 붓물 터지듯 수많은 주간지, 월간지들이 창간에 기지를 올려 잡지춘추전국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이들중 소위 장사가 좀 된다고 하는 여성지수의 증가는 하루가 다들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지들이 담고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표지전면에 가득 달린 호객성 제목, 보물찾기하듯 애써 찾아내야하는 목차, 광고에 파묻혀 본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본문내용, 상품보다는 여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광고, 확인

되지 않은 막연한 타인의 사생활 폭로, 그럴듯해 보이나 별로 실속없는 생활정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원색화보 등등 그 어느 여성지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피상적인 생각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이들 여성지의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표출해냄으로써 우리 사회 대중문화의 한 요소로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성지들의 현재 위상을 구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성동아」, 「여성중앙」, 「가정조선」 5월호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이들 월간지 발행처에서 함께 발행하고 있는 월간 시사종합지의 내용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여성지와 시사종합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직접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II. 광고분석

1. 본문면수에 맞먹는 광고면수

누구나 잡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잡지로부터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여성잡지는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잡지의 판매대금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수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분석결과, 기존의 통념을 증명해주는 수치가 (표1)과 같이 나타났다. 광고면수가 본문면수와 거의 맞먹고 있는 것이다.

시사종합지 광고면의 비율이 16~24% 정도로 5분의 1내지 4분의 1 정도인데 비해 여성지의 광고면 비율은 38~49%로 3분의 1을 훨씬 넘어서 2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광고인지 기사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품소개만까지 광고로 간주하면 광고면의 비율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지가 추구하고 있는 상업성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표 1)

	여성동아	여성중앙	가정조선	신 동 아	월간중앙	월간조선
본문면수	447	440	432	525	563	534
광고면수	307	418	270	191	105	172
총면수(실 제)	754	858	702	716	668	706
(명목상)	614	492	634	622	668	626
광고면수/총면수	41%	49%	38%	27%	16%	24%

하였다. 물론 여성지로 광고가 몰리고 있는 것은 주된 소비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을 주 광고대상으로 삼으려는 기업측의 의도에 광고수입증대를 통한 높은 이윤을 올리려는 잡지측의 의도가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광고계제로 엄청난 광고수입을 올린 것으로 생각되는 여성지의 가격이 그보다 훨씬 적은 광고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 시사종합지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즉 현재 시중판매가격이 여성지는 4천8백원씩이고, 시사종합지는 4천3백원씩으로 되어있다. 광고면수는 여성

지쪽이 시사종합지에 비해 2배에 가깝고, 본문면수는 시사종합지가 여성지보다 오히려 많은데도 여성지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없다. 물론 여성지가 4·6 배판이고 시사종합지가 국판이기 때문에 판형에서 차이가 나고, 여성지가 좀더 많은 원색화보를 사용해 화려하게 인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쇄비용이 지출해야 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비용은 광고수입만으로도 충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책값이 더 비싸질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많은 광고를 받아 높은 광고수입을 올리고도 그 광고를 인쇄하는 비용은

독자에게 물리고 있다는 사실은 책을 출판하는 기업의 윤리의식을 의심하게 한다.

윤리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또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잡지자체에 나타나 있는 페이지수와 실제 페이지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표1에서 나타나듯이 「월간 중앙」만 실제페이지수와 명목상의 페이지수가 일치하고 나머지는 80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여성중앙」의 경우 실제 페이지는 858페이지로 다른 어떤 책보다 두꺼운데도 자체적으로 매겨놓은 마지막 페이지는 490페이지(표지포함 492페이지)로 되어있다. 본문내용에는 분명하게 페이지를 밝힌 반면 광고면은 페이지를 제대로 매기지 않고 대중대중 페이지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페이지수보다 훨씬 적게 페이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전체 광고의 수를 좀 더 늘려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책제작과정상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일수도 있었지만 같은 신문사 발행으로 되어있는 「월간중앙」과 「여성중앙」이 가장 큰 차를 보여주는 것은 책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준다.

물론 이것은 그냥 소일거리 삼아 책을 무심히 보아넘기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면에 노출시키는 것은 출판인의 윤리의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독자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자

세가 아쉽다고 하겠다.

2. 제품보다는 여성 그 자체를 상품으로 다룬 광고

책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광고가 주로 담고있는 내용은 표2에서 보듯이 의류, 속옷, 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화장품 등 외형적인 몸치장과 관련된 광고가 대부분이다.

이는 물론 사회적인 소비풍조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왜 그런 광고가 많은가에 대해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광고가 담고있는 모델의 모습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류광고의 경우 여성의류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의 모습은 대개가 눈을 아래로 게슴치레하게 내려뜨거나 촛점없이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 또는 엉거주

춤하게 웃음을 흘리는 모습으로 광고를 하고있다. 반면 남자의류광고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정장을 하고 똑바로 서있거나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스타킹 광고는 팬티도 입지않은 여성의 히프라인을 강조하는 것이 많고, 여성속옷광고에서는 속옷 자체보다 여성의 몸매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남성용 속옷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여름용 화장품 광고로서 화장품을 팔고자하는 선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보다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에 한결같이 촛점을 맞추고 있다. 제품 자체는 한구석에 놓여있고 각종 포즈를 취한 여성의 모습만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 팔고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다.

III. 본문내용분석

1. 각지의 독특한 개성없이

비슷비슷하고 그렇고 그런 내용 '품위와 격조의 1등 여성지'임을 내세우는 「여성중앙」이나 '교양있는 여성의 빛, 단란한 가정의 길잡이'라고 자처하는 「여성동아」나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담은 욕심많은 잡지'라고 선전하는 「가정조선」이나 담고있는 내용은 비슷비슷해서 표지를 보지않고 책 내용만 살펴본다면 어느 책을 보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런 저런 사람들의 그렇고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나 살아가는 이야기, 화려한 몸치장에 집치장, 최고급 음식, 여유있는 여가생활, 돈버는 방법, 집장만하는 방법 등이 비슷비슷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2. 여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지와 시사종합지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표3)과 같이 화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여성지와 시사종합지의 내용유형분석의 틀 자체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물론 잡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지가 주로 담고있는 내용은 여성의 역할을 패션, 미용, 요리, 육아 등 기존의 고정관념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너무 많은 지면이 할당되고 있다. 또한 인물 인터뷰 기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사를 화보형식으로 처리해 내용보다는 겉치장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기 좋은 먹이 먹기도 좋다고는 하나 내용에는 크게 신경도 안쓰고 허술한 채

(표 2) 광고유형분석

	여성동아	여성중앙	가정조선	신 동 아	월간중앙	월간조선
의 류	43	65	15	65	26	49
속 옷	27	19	22	·	1	1
구두·핸드백등 신변장착	21	36	17	27	6	31
화 장 품	40	37	33	3	3	2
가전·주방용품	37	58	34	11	10	8
생활·문화용품	38	60	40	·	·	·
아동·유아용품	20	38	30	·	·	·
식 품	37	50	28	22(술14)	12(술7)	22(술14)
악 품	20	20	19	9	5	9
책	3	3	10	9	5	12
기업광고	2	2	·	12	17	12
레 저	8	9	2	11	6	10
자 동 차	·	·	·	12	6	8
기 타	11	21	20	10	8	8
총광고면수	307	418	270	191	105	172



로 방치하면서 그 허술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외형을 더욱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뒷맛이 씁쓸하다. 결국 시사종합지가 담고있는 내용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여성지의 내용이 너무도 가볍고 빈약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의 기사화
「여성동아」, 「여성중앙」, 「가정조선」 5월호는 모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내재아들인 현대알루미늄 회장 정몽우씨의 자살내막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물론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만한 사건이었음에 분명하나 시사중

합지쪽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반해 여성지쪽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과거의 일가 비극까지 뒤져내어 사건을 가능한 크게 다루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조선」에서는 정주영 회장의 막내동생 정신영씨의 요절, 장남 정몽필씨의 교통사에 이어 이번에 자살한 막내아들 정몽우씨의 이야기까지 가정조선 합동취재반의 이름으로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남의 비극을 들추서내고 아픈 곳을 한번 더 찢어보는 식이다. 또한 확실한 증거에 의한 기사화가 아니라 막연히 어디에선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여성중앙」은 "아무튼 그의 자살뒤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임에는 틀림 없지만 함구하고 있는 처남 이진호씨나 가족중 누군가 속 시원히 밝히지 않는다면 현재로는 상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다"는 하나마나한 말로 결론을 맺고있어 '정몽우 회장 돌연 자살내막은 이렇다'는 기사의 제목이 부끄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게한다.

「여성중앙」에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 박근혜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특별독점인터뷰라는 것을 강조해 수록하면서 '아버지 재평가 위해서라면 정치참여도 뜻을 두겠어요'라는 제목을 큰 활자로 뽑았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뷰어가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가지로 질문을 했지만 박근혜씨가 그런 말을 한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상당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현장에 나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근혜씨는 '하루아침에 정치판도가 뒤바뀌는 세상에 살면서 그 시대 시대에 맞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여기에 이어 다시 일선에 뛰어들어 정치도의를 바로 세우는 수법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버지 생전의 대화내용과 그분의 이상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갔는데 정치참여의 뜻을 펴겠다는 것으로 마음대로 해석해 타이틀로까지 뽑아쓴 것이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최근의 잡지출판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앞으로의 여성지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대중문화의 작은 한 줄기인 잡지, 그중에서도 월간 여성지, 그



것도 그 일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여성지가 갖는 문제점으로 이미 부각되고 인식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윤리의식마저 저버리고 추구하고 있는 상업성, 성역할에 대한 편견, 폭로성 위주의 보도태도 등 예전부터 지적되어오던 사항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극히 일부의 사실을 근거로 도출해낸 결론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자그마한 현상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 하겠다.

별 특색도 없이 여러가지 제호로 쏟아져 나오고있는 여성지가 각기 개성을 갖추고 나름대로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의 광고분석과 본문내용분석을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대중문화의 작은 한 줄기인 잡지, 그중에서도 월간 여성지, 그것도 그 일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여성지가 갖는 문제점으로 이미 부각되고 인식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윤리의식마저 저버리고 추구하고 있는 상업성, 성역할에 대한 편견, 폭로성 위주의 보도태도 등 예전부터 지적되어오던 사항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첫째로 독자에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잡지가 되어야 한다. 즉 광고면수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

는 방식으로 광고수입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거두어들인 이윤을 일부라도 독자에게 되돌리려는 자세, 즉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독자에게 보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있는 여성지부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광고나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는 지양하고 깨어있는 의식을 보여주어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독자들 스스로도 보다 알찬 내용을 갖춘 잡지를 선택해보는 태도를 갖고, 무의식적으로 비판력없이 받아넘기는 태도를 지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잡지를 통해 최선의,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표 3) 본문내용 유형분석

	여성 동아	여성 중앙	가정 조선		신동아	월간 중앙	월간 조선
화제인물	102	81	131	화제인물	26	28	102
칼럼·에세이	·	9	12	칼럼·에세이	23	10	18
현장리포	12	22	26	정 치	84	60	40
패 션	46	41	26	경 제	48	31	44
미 용	27	4	14	사 회	103	101	116
요 리	35	51	26	문 화	16	24	47
주 생 활	27	26	33	생활·과학	37	36	44
생활·취업정보	64	30	16	외 교	9	72	·
취 미	8	·	·	해외주세(북한포함)	28	41	9
건 강	29	27	·	해외풍물	18	4	·
여 가	18	20	11	시 사	24	32	15
성 문 제	16	·	·	시·수필·소설·만화	45	67	31
자녀교육·육아	27	39	42	독자참여	2	2	2
해외풍물·소식	·	10	4	화 보	36	25	36
소설·만화·시	1	34	32	교양·기타	26	30	30
독자참여	10	15	17				
교양·기타	30	53	36				
총내용면수	452	462	426	총내용면수	525	563	534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 개최

전국의 7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가 주관하고 본회가 간사단체로 참여한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가 6월20일 1000여명의 여성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향교회관에서 열렸다.

대회장인 본회 김경오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과소비 의미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조순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강연을 들은 후 8개항의 결의문 및 7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사치와 허례허식 우리살림 명든다' '내가 하는 과소비 국가경제 좀먹는다' '과소비 망국풍조 너나없이 책임있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향교회관에서 롯데월드까지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 대회는 최근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의 경제적·사회적 심각성을 깊이 절감하고 개별단체 단위로 산발적으로 전개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범여성계가 연합,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를 결성하여 준비하였고, 지속적으로 과소비 추방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및 건의문은 다음과 같다.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나는 경제정의와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향락이나 퇴폐문화가 생활 속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건전한 문화를 육성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자녀들이 낭비하고 사치한 소비습관을 갖지 않도록 내가 먼저 모범적인 소비생활을 보일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의 사정을 생각하며 이웃과 더불어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수입품을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겠으며 우리 체질에는 우리 농

산물이 제일이므로 우리 농산물을 먹을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과다혼수로 빚어지는 비인간적 사회풍토를 개선하고 건전한 결혼풍습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지나친 낭비나 사치, 과소비 현상이 있는지 살펴서 나부터 아끼고 절약하며 알뜰한 소비생활을 할 것을 다짐한다.

1. 나는 나의 과다소비생활이 환경을 오염·파괴하는 것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는데 힘쓸 것을 다짐한다.

1990. 6. 20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건의문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에



참석한 우리 여성 일동은 과소비 사치풍조가 경제 위기는 물론 사회윤리 및 질서의 혼란까지도 초래함을 심히 우려하며 이의 추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 정부에게 *

1. 정부는 무기에 의한 엄청난 불로소득이 과소비의 주원인임을 깨닫고 불로소득과 음성수입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1. 정부는 수입개방 압력에 적극 대처해 국내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

1. 정부는 시민들의 집값, 전세값의 폭등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인상을 해결하기 위한 물가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

* 기업에게 *

1. 기업은 외제상품 수입으로 손쉬운 판매수익만을 얻으려 하지 말고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노력하여줄 것을 건의한다.

* 기업에게 *

1. 기업은 허위 과대광고가 과소비 낭비풍조의 요인임을 깨닫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 기업은 부동산 무기를 조장하고 지가를 상승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유흥 등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자진 처리에 적극 호응할 것을 건의한다.

1. 기업은 과도한 접대비를 줄이고 성실한 경영자세로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에 힘쓸 것을 건의한다.

1990. 6. 20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제3기 노동상담 실무자교육 실시

근로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노동상담실무자교육이 7월2일~3일 한국여성개발

원에서 실시되었다. 노동조합의 여성 간부 및 조합원, 직장여성 근로상담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여성의 현안문제 및 노조내에서의 여성의 위상문제 등에 관한 강연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

-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 한정자(한국여성개발원 교수)
- ▲노조내 여성 조합원의 권리와 역할
- 김영희(본회 근로여성위원회 위원)
- ▲슬라이드 상영-우리들의 열매
- ▲남녀고용평등법 활용
- 김송자(노동부 부녀지도관)
- ▲분과토의 I: 근로자로서의 여성

제2일

- ▲노동법의 개괄적 설명
- 최미희(경인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 ▲분과토의 II: 노조내의 여성의 역할
- ▲종합토론-사회: 윤자야(공인노무사)



결의문

과소비추방범여성실천대회에 참석한 우리 여성 일동은 망국적인 과소비 추방을 위해 매월 5일을 「과소비 추방의 날」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우리들의 광장

- 대한간호협회 ●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 대한영양사회 ● 대한조산협회
- 국제여성총연합회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 대한민국의전물군경미망인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대한간호협회

지방자치제에 따른 보건소 조직체계 공청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지방자치제에 따른 보건소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2일 대한간호협회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간협은 공공보건기관이 지역사회주민의 건강복지구현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보건소 간호조직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용역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국에서 1백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 박정호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확대되어가는 보건간호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부서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방안이 논의

되기를 당부했다.

간협 연구용역을 맡았던 김화중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주제발표에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보건조직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보건조직체계내에 보건간호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영희 간협기획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오대규(보사부 지역의료과장), 변종화(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연장(중대간호학과장) 씨가 각계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였다.



90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식단전시회에서 전시내용 설명하는 장면 - 대한영양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정주 박사, 장로회 여전도연합선교 대회에서 특강

6월 7일 강남소망교회에서 열린 장로회 여전도 연합선교 대회에서 김정주 박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공군부대에 절제 팜플렛 우수

경북 공화군에 위치한 공군부대에 급주급연 및 마약퇴치의 중요성과 그 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자유·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절제 팜플렛 500부를 6월11일 우송했다.

이천지회 장학생 추가

6월11일 경기도 이천지회에 새 장학생을 추가하여 절제회 장학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선교회 성경강해

6월27일 선교회 성경강해를 갖고 「로마서 8:1~4절에 나타난 바울의 성령이행」라는 제목으로 김정주 박사의 강의를 들었다.

청소년 절제회 글짓기 대회

청소년 절제회(YIC) 주최로 청소년

우리들의 광장

들이 왜 절제하는 태도가 중요한가를 성서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는 글짓기 대회를 6월30일 절제회관 2층 강당에서 주최하고 동시에 서울지역 21명 절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대한영양사회

'90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식단전시회 개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과 식생활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회인 「'90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식단전시회」를 지난 6월8일~9일 63빌딩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국민영양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봉사활동의 일환으로 '8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온 이번 행사는 사업체 분과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계획·준비되었는데, 「직장인의 영양관리」라는 주제로 보드 및 식단전시와 컴퓨터를 이용한 영양상담, 시청각자료(슬라이드, 비디오)상영 등의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보드 및 식단전시는 직장인의 식생활 관리,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식사 지침, 성인병과 식생활, 바람직한 아침식단, 쌀을 이용한 음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코너마다 상담원이 배치되어 관람자들에게 전시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영양상담코너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별 식생활진단과 함께 실무영양사의 일반영양상담, 성인병의 식사요법에 대한 질병상담도 실시하였다.

영양사 및 일반인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여 건강과 식생활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지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한조산협회

서울지부 '어머니 교실' 운영

대한조산협회 서울지부(지부장: 김명재)에서는 6월11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비디오 상영을 비롯하여 요즘 부쩍 문제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및 범죄의 예방대책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명재 지부장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일반상식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대한조산협회 부산지부 제1차 보수교육

우리들의 광장



부산지부 제1차 보수교육 실시

대한조산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이화자)에서는 6월7일 부산YWCA 2층 회의실에서 약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제1차 보수교육을 가졌다. 교육내용으로는 '자녀상담의 이해' (조광제: 경성대 교수), '여성의 외생 식기에 발생하는 부인과적 질환 및 경구암' (유길조: 산부인과 원장), '신생아의 감염' (김희진: 춘해병원 소아과 과장) 등이었으며, 각 구 구역장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제22차 국제조산 학술대회 참가회원 2차 접수

대한조산협회에서는 '9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는 I.C.M. (국제조산연맹) 학술대회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중이다. 2차등록 마감은 8월5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대한조산협회 사무국

(Tel. 279-1972)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회원 연수회 개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는 회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22, 23일 강원도 대관령에서 '현대사회를 사는 여성'을 주제로 회원 연수회를 가졌다.

강의를 맡은 이연숙 이사(미문화원 상임고문)는 "가정내에 국한되어 남성의 보조기능에 머물 여성의 역할을 가정밖의 활동 영역으로 확장시켜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며 현대사회는 자기 성장을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사회임을 인식" 하라고 강조하였다. 또 요즈음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과소비 현상에 대해 경제구조적인 분석과 비판도 필요하지만 과소비에 의해 버려지는 물자는 자연환경을 파괴, 오염시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게 됨을 자각하

고 절제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앞으로 과소비 추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습관을 생활화하기로 다짐하였다.

국제 집회 참석

국제여성총연맹 본부는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제99회 국제대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100주년 기념행사를 미국 뉴욕 매리웃 마퀴스(MARRIOTT MARQUIS) 호텔에서 주최한다.

세계 48개국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 한국본부에서는 대구지회, 경북지회를 비롯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세계 여성의 단합'이라는 공동의 과제 아래 봉사, 문화, 가정 등 주제별 분과회의를 갖게 된다.

특히 한국본부는 세계 여성들과의 문화교류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도(茶道) 시범을 보여 줄 계획인데 이는 국제여성총연맹 본부에서 특별히 마련해 준 자리로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 같다. 또한 김민재 회장은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으로 조국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모범 여성을 표창하고 격려하게 될 것이며 재미 한국여성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제6회 전국닭고기 요리 솜씨대회 지방대회' 개최 안내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와 대한양계협회가 '91년도에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제6회 전국 닭고기 요리솜씨대회를 위한 지방대회를 아래 일정과 같이 실시한다.

행사목적은 전국 주요도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중적이며 새롭고 다양한 닭고기요리를 개발·보급하여 지방에서의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91년도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지방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참가요령은 참가신청서를 우편 또는 직접 배부받아 특색있는 닭고기요리를 원고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1차원고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게 된다.

1차원고심사 합격자는 행사 당일예 사전 제출한 원고대로 닭고기 요리실물을 만들어 출품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최우수상 1명 (상패와 30만원 상당의 부상)
 - 우수상 1명 (상패와 10만원 상당의 부상)
 - 장려상 5명 (상패와 5만원 상당의 부상)
 - 참가상 (닭고기요리 출품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 또한 각 지역의 수상자는 '91년도 전국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참가시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90년도 전국 닭고기 요리솜씨대회 실시 장면

일 자	시 간	장 소	원 고 마 감 일	참 가 자 격
8/21(화)	14시	부산시 부산호텔 2층	7/30(월)	부산시 및 경남·북도 거주자
8/24(금)	14시	서울시 프라자호텔 2층	7/30(월)	서울시 및 인천·경기·강원도 거주자
9/4(화)	14시	대전시 시민회관 소강당	8/14(화)	대전시 및 충남·북도 거주자
9/7(금)	14시	제주시 오라엔탈호텔2층	8/14(화)	제주도 거주자
9/11(화)	14시	전주시 코아백화점예식부	8/24(금)	전주시 및 전북도 거주자
9/14(금)	14시	광주시 YWCA강당	8/24(금)	광주시 및 전남도 거주자

- 원고배부 및 접수처 -

- 서울본부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86 전화 (02) 733-4983
- 중부지부 300-010 대전시 동구 원동 62-4 전화 (042) 255-3995
- 제주지부 690-021 제주시 이도1동 1525 전화 (064) 51-1787

'직장여성을 위한 예비신부요리교육' 실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결혼을

앞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개월과정의 예비신부요리교육을 실시한다.

수강시간은 주5회(월~금요일/오후 6시30분~8시)이며 각국의 기초요리를 지도한다.

또한 실습을 원하는 수강생은 본인이 실습재료비를 부담하여 그날 배운 요리를 직접 실습 후 시식까지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7월20일부터이며, 전차순 20명에 한하여 마감한다.

수강장소는 식생활개발연구회 조리실이며 문의는 733-4983으로 하면

우리들의 광장

된다.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제12회 장한 어머니상 시상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에서는 6월11일 보훈회관에서 이상연 보훈처장, 민자당의 이윤자, 신영순 의원, 제2정무차관, 각 단체장 등 내빈과 회원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장한 어머니상을 수여받은 수상자는 전국의 지부 및 상군회, 유족회에서 추천된 17명이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만연(부산지부), 이희남(서울지부) 이매영(서울지부), 황보서길(인천지부) 박덕이(대구지부), 백재대(광주지부) 최 씨(경기지부), 최정애(강원지부) 오재순(충북지부), 신순설(충남지부) 민영숙(전북지부), 허만엽(전남지부) 김계남(경북지부), 강정숙(경남지부) 김윤옥(제주지부), 이수남(상군회) 박말자(유족회)

의경 및 육군부대 위문

미망인회에서는 6월11일 의경부대를, 13일에는 육군부대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6.25 난국의 날 40주년 시가행진 참석

미망인회 회원 100여명은 6월24일 6.25 난국의 날 40주년 행사 시가행진

에 참석하여 전쟁기념사업회(구 육군본부)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벌였다.

유엔참전기념비 및 유엔묘지 참배

미망인회에서는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유엔참전 16개국 기념비를 순례하는 한편 부산 유엔묘지를 참배·헌화하였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재활용 쓰레기 및 가연성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회관에서 김천주 회장 및 서울시, 환경처, 환경청소협회 등 각 대표와 서울, 안양, 온양 등 쓰레기 분리수거 참가지역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및 가연

성 쓰레기 처리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주부들은 생활용 쓰레기로 분류해두어도 수거업체가 제대로 수거를 해가지 않는 바람에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는 분리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수거상들이 재분리를 해야하는데 그때 드는 인건비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대개 아파트의 쓰레기양은 차한대분이 안돼 운송비도 안된다는 등 어려움이 있음을 토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난관이 있으나 앞으로 행정부가 쓰레기 분리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립할 것●가연성●재활용 가능한 것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 주도록 당부했으며 주부들은 국가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 운동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토론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우리들의 광장

제21기 사임당학당 수료식 가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생활향상기획부에서는 지난 6월29일 연합회 강의실에서 제21기 사임당학당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5월28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이번 학당은 현대 여성의 사회역할, 가정경제와 주부의 역할, 생활예절, 신사업당의 생애와 예술세계, 가족법 개정과 여성의 권리 등 요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내용의 강의를 들었으며 함께 국립묘지 참배와 공장견학 등을 통한 수료생간의 친목도모에도 힘썼다.

제88기 파출회원 교육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무료직업안내사업부에서는 지난 7월3일부터 6일까지 제88기 파출회원을 모집하여 연합회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직업인의 자세와 책임, 청소·정리·정돈·생활예절, 올바른 세탁법과 다림질요령, 선풍기의 경험담, 알뜰한 소비생활, 가전제품의 사용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준비, 교육하였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조직원 해외연수 실시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에서는 조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 일본과 미국 등을 순방하면서 견문을 넓힐뿐 아니라 승공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각 나

라를 방문하여 서로의 결속을 다지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7월6일부터 14일까지(8박9일) 실시될 방미연수자들을 위한 교육이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있었는데 이들 방미연수자들은 전국 시·군구 여성회장과 중앙위원들로서 143명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었다.

전국 시·도 여성회장단 회의 개최

지난 6월20~21일 양일에 걸쳐 전국 시·도 여성회장단 및 서울22개 구 여성회장단 연석회의가 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회장단의 결성과 더불어 자체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여성회원의 자질향상을 높이기 위해 교양강좌를 실시하며 또 시민교육과 퇴직문화추진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회의 진행중에 조민자 회장의 파소비 추방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29일에는 송파구에서 이보희 재정부장이 주도하여 파소비 추방에 대한 강연회가 송파구 여성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인천시 여성회장 대통령상 수상

인천시 여성회장 금숙희씨가 지난 6월26일에 대통령상인 부녀복지증진유공자상을 받았다. 금숙희 여성회장은 여군도 창설되기전인 1948년 알아봄의 꽃다운 나이로 전장에 뛰어들어 휴전을 맞기까지 5년여 세월을 육군보병 1사단 12연대에 소속돼 대북방송활동을 해왔다. 그녀의 용성을 듣고 인민군이 하

나를 귀순하자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여성의 힘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느끼고 지금까지 승공의 이념으로써 지역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선두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나이에 관계치 않고 여러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유아원을 경영하면서 여성 민방위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진주클럽, 한가람클럽 발족

지난 6월중에 진주클럽과 한가람클럽이 발족됨으로써 한국의 전문직업여성클럽(BPW)이 16개 클럽이 되었다.

진주클럽은 6월11일 진주시종합복지회관에서 26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임원인준식을 갖고 박재욱 교수(경상대학교)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또 한가람클럽은 6월19일 롯데호텔 36층 피코크룸에서 35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시인이며, 열음사 대표인 김수경씨를 초대회장으로 임원인준식을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전문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주제로 이재순 정무제2장관의 강연도 실시되었다.

충청남도지역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정자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84년 3월, 충남지역의 8개 여성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회원단체간의 친목도모와 사업의 협의조정, 시책사업 수용, 지역발전 실천참여 등을 목표로 발족되어 초대회장에 조선형(당시 한국걸스카웃 충남연맹장) 회장이 취임한 후 현재 8대 윤정자(한국걸스카웃 충남연맹장) 회장에 이르고 있다.

발족이후 충남여협은 1984년 6월16

일 제1차 여성대회를 열고 '여성의 힘, 나라의 힘'을 주제로 한 주제강연을 갖고 충남여협회장상을 제정, 모범여성 및 모범소녀가장을 시상·격려하였으며, 이후 매년 연례행사로 여성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충남남도 여성회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불우이웃돕기, 소비자보호운동, 여성지위향상, 과소비 문제, 자연보호문제, 상설매장 운영, 바자회 개최 등의 계속사업과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맞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또한 충남여협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화목하고 예절바른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 1989년 6월 21일 '모성으로 사회안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가정안정이 곧 사회안정임을 인식케했으며, 금년도에는 5월15일~17일 '미래사회를 위한 어머니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

고, 6월26일 천안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차 여성대회에서는 '배워서 모성회복, 가르쳐서 모성발휘'라는 주제로 행사를 치렀으며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재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89년 한햇동안 충남여협이 펼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3월 9일~10일까지 수안보온천에서 도 및 시·군 여성단체장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력 함양 및 여성 건전식생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7월 14일 부여 군민회관에서 도 여성단체 회원 1000명이 모여 잇달은 불법 입북사태와 좌경용공세력으로 인한 사회혼란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혼란을 느끼는 다수 국민의 의견을 천명하고자 용공통일절대배격여성결기대회 개최 △ 9월29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250명의 여성단체회원이 모여 남녀고용평등

법의 올바른 이해와 이해 당사자의 홍보계몽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정착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토론회 개최 △ 11월24일 충남 여성회관에서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한 지역간 특산물 바자회 개최 등이다.

이밖에도 가족법 개정 정착사업, 전전 소비생활, 과소비억제 캠페인 등 다함께 이룩하는 건실한 사회풍토 조성 과 혼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이 시대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모성으로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에 결혼상담실을 운영, 자원활동자로 전 도의 여성단체가 뛰고 있으며, 작년도 249쌍을 성사시켰으며, '90. 5월 현재로 108쌍을 성혼시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깨끗한 환경되찾기 실천운동

충청남도는 깨끗한 환경 되찾기 실

천운동을 3월부터 내실있고 알차게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도당국(가정과)은 이 운동을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이달과 다음달 사이에 1회 이상 시군별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교육시 병행하여 계도교육도 실시하며, 전 가정에 생활수칙을 46만부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세부 실천사항은 쓰레기 분리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자가처리 가능한 것은 소각, 매립 구분처리 △ 재활용

가능한 것 별도 수거 △쓰레기 수거용 비닐 구분 사용 △반단위 공동쓰레기장(적치장) 설치 등 생활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각종세제 적정기준 사용 △식용유 찌꺼기 휴지로 닦아 태우기 △하수구에 음식찌꺼기 안버리기 △정화조 1년에 한번 청소하기 등.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분뇨, 오물 등을 들이나 하천에 버리지 않기 △산, 들, 경기장에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공해배출업소 고발(산업폐수, 축산폐수, 매연 등)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촉구 △사용이 끝난 단추형 수은, 건전지 판매점에 되돌려주기 등을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특별한 관심으로 실천하여 공해없는 깨끗한 환경 되살리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헤미리뉴스 3월17일자)

무공해 농산물 보급 나서

무공해 농산물에 대한 주부들의 관

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한 두군데 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무공해 농산물직거래 운동이 이젠 대전 시내 각 여성단체의 주요사업이 돼 점차 확산돼 나가고 있다. 무공해 농산물직거래운동은 88년 6월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살림의 집」(대표: 민명수)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이젠 살림의 집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협의회 충남도지부를 비롯한 대전시내 모든 여성단체들이 무공해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88년 당시 대전주부아카데미 수료생 6명이 주축이 돼 문을 열었던 살림의 집도 2년이 안된 현재 회원이 6백여명으로 늘어났다.

『무공해 식품을 원하는 주부들이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늘어난 것은 농산물에 있어서 공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며 공해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민명수 대표는 풀이했다.

충남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정자씨도 「회원들이 모이면 농약에 오염된 음식물, 방부제와 기타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다량 첨가된 식품 등의 폐해에 관해 논의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대부분의 여협 회원들은 가정의 식생활을 맡고 있는 만큼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의 심각성과 무공해 농산물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 충남여성회관
에 위치한 상설매장을 이용, 산지와 연
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살림의 집도 회원의 규모가 커지고
대외적인 공신성 확보 보다 체계적이

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면회, 대전YMCA를 비롯한 6~7개 단체와 협력,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환, 보다 확대해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 농산물 거래장에서 선보이는 것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현미, 백미와 사과, 딸기 등 계절에 따른 과일과 야채, 유정란 등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 유기농법 재배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살림의 집은 아산 음봉지역에서 그동안 공급받았으나 얼마전 공급이 딸려 충북 중원 유기농환경연구회 충북지회로부터 쌀을 공급받고 있다.

살림의 집과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무궁해 농산물 거래 관계자는 『무궁해 농산물 먹이운동은 단순히 무궁해식물을 먹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궁해 혹은 저궁해 식물을 먹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살핌은 물론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를 확산시켜 농약, 화학비료에 의해 죽어가는 우리 농토를 되살리고자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일보 4월 4일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농촌치녀들을 농촌의 품안으로 불러오자」 충청남도가 새로운 농촌총각 작가보내기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사회단체 등이 앞장서 벌이고 있는 농촌총과 짝지어주기 운동이라 사회적 관심이 고조돼있으나 결실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도당국이 직접 짝짓기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운동에

시생활의 어두운 면을 소개함으로써 농
촌을 떠났던 처녀들을 다시 불러들인
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생활환경개선이 반강제적으로 댔어진 농촌총각들의 짝짓기운동결과 중도에 좌절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는 40세이상 57명, 36~39세 5백73명, 30~35세 3천5백32명 등, 26세이상 미혼농촌총각은 모두 8천5백71명인데 비해 26세이상 처녀는 9백61명뿐이다. 9대1로 처녀가 적다.

충청남도가 첫 시도한 방법은 어머니교실 운영. 3월 15일부터 한달간 도내 15개군을 순회하며 실시된 간단회 형식의 이 모임은 도시로 떠난 농촌여성들의 결혼문제, 일상생활 등을 있는 그대로 알려 농촌어머니들의 잘못된 결혼관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2백49쌍을 성혼시킨데 이어 올해는 이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해 농촌젊은이나 도시처녀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의 부업·화장실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마을단위모임에 도시처녀를 초청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에 나간 농촌여성들에게 군단위로 향우회를 조직해 서울YMC A의 주선으로 만남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충청남도의 관계자는 『농어촌·총과 결혼문제는 농촌만의 일이 아닌 도시 문제와 직결된다』며 『우리 사회 모두 관심과 애정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4월16일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김	경	오	강남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부				장	김	육	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307-71	032-93-3493
부				장	오	정	순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101동 405호	488-1881
서				장	김	경	회	구로구 신도림동 마성아파트 5-106	671-0326
서	기	이	사	박	육	기	자	성동구 옥수동 한남 하이츠아파트 9-503	232-9090
회	기	이	사	강	인	자	자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 1012-401호	503-4691
회	계	이	사	정	숙	민	민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244
감	계	이	사	조	동	숙	숙	강서구 신정 4동 983-1 이만빌딩 4층	603-5779
감			사	정	영	원	원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14-1001	542-1430
조			사	강	기	심	자	종로구 신교동 2-30	736-8229
재	직	관	위	원	정	연	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성아파트 8동 909호	783-2924
출	정	리	위	원	장	숙	주	동작구 대방동 58-490	815-2244
기	판	공	위	원	장	천	언	서초구 서초동 1494-16 롯데빌리지 나동 102호	586-3541
국	획	연	위	원	장	용	숙	종로구 혜화동 15-8	762-1090
사	제	관	위	원	장	인	래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5-4534
		무	총	장	김	금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507동 1109호	471-7865

회원 단체

(회원단체가입순)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박정호	충구 쌍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어학사협회	박용언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산협회	김복순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박정자	중구 목정동 18 대학문화원 304호		273-7645
중앙부인회	이순옥	성북구 보문동 2가 7		95-210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중구 남창동 1-2 새로나백화점 6층		752-4227
가톨릭여성연합회	오덕주	중구 영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백정란	용산구 청파동 2가 53번지 희빌딩 303호		718-0915
법태평양동남아시아여성협회	문용주	강남구 삼성동 113-1 코스모스텔 305호		557-8773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안목단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국여성상공협회	정숙자	중구 봉래동 1가 132-5		755-5341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오정순	강남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자수협회	김숙태	서초구 구반포 본동 67-103		534-1956
한국무먼스클럽	김인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강남구 반포동 425-1 반포소필타운 7동520호		533-1906
국제존타서울클럽	배영희	성북구 성북동 330-500		764-4445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52-1872
대한전물군경미망인회	양순임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782-286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정연심	강남구 서초동 1161-2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협회	이은임	종로구 사간동 74번지		734-9477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	종로구 청진동 286		733-498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김민제	강남구 신사동 585-11 심마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조정순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704호		842-4334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조민자	중구 중림동 355 대왕빌딩 610호		392-5601

편집후기

—6월부터 시작된 장마에 이어 어느 해보다 이따다 싶게 무더위가 닥쳐와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입부터 길게만 느껴지는 이 여름을 잘 보낼수 있도록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호에는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본회가 실시한 '서울시 주부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특집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하게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간여성 • 1990년 7월호 통권 276호
(매월 10일 발행)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광오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진식자: 한라기획

발행일자: 1990년 7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준주

위원: 김호자/박금옥/박영혜/박용옥/

신동식/오종자/최정섭

담당: 오해란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고급양념 맛이 진하게 우러나요!

“고급양념 감치미, 쇠고기가 4 배 들어있어
국물맛이 한결 진해요”

“고급양념이라 느끼하지 않아요.”
“쇠고기맛이 진해요.” “사용이 간편해요.”
“영기지도 눅눅해지지도 않던데요.”
한번이라도 써보신 주부님들은 다시
감치미를 즐겨 찾습니다.
감치미는 어떤 국물, 어떤 찌개음식에
사용해도 쇠고기국물맛을 제대로
내주기 때문이죠.

국, 찌개, 탕... 국물음식의 제맛은
이제 감치미로 즐기세요.



주식미원